

2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3075.06	782.17		
(-14.59)	(-1.50)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2.483	1359.10		
(+0.029)	(+3.20)		



HVAC에 미래 건다... 삼성·LG, ‘열’ 다스리기 승부수

〈냉난방공조〉

AI·반도체 확산에 냉각수요 급증
글로벌 HVAC시장 연 6% 성장세
EU 탄소중립 정책도 시장확대 견인

삼성, 플렉트 인수로 통합 솔루션
LG, OSO 온수기술로 생활시장 겨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 냉난방 공조(HVAC) 전문기업을 잇따라 인수 하며 새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나섰다. 고성능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확산으로 발열량이 급증하면서 ‘열을 다스리는 기술’이 전자업계의 새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2일 글로벌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HVAC 시장은 2024년 3016억 달러(약 415조원)에서 2034년 5454억 달러(약 750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AI 서버와 반도체 장비 가동이 늘면서 냉각수요가 치솟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 클린룸, 공장 등 대형 산업시설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열 관리 시스템이 없이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의 정책 변화도 공조 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다. EU는 ‘핏 포 55(Fit for 55)’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가스·석유 보일러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히트펌프 등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독일은 히트펌프 설치 시 최대 50%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며, 프랑스·오스트리아 등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독일 산업용 공조기업 플렉트그룹을 15억유로(약 2조 3700억원)에 인수했다. 2017년 하만 인수(약 9조 4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 인수합병(M&A)이다.

플렉트그룹은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기가팩토리 등 고발열 산업시설에 특화된 냉각·공조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럽 최대 HVAC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플렉트그룹 인수를 통해 반도체부터 서버, 데이터센터, 냉각까지 수직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자사 스마트싱스 플랫폼과 연결되는 AI·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 HVAC 서비스 모델도 구축할 방침이다.

LG전자는 지난달 30일 노르웨이 온수 솔루션 전문기업 OSO의 지분 100%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인수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수천 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1932년 설립된 OSO는 스테인리스 고효율 온수 저장장치(워터스토리지) 분야에서 유럽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다. 히트펌프·보일러와 연계한 고효율 온수 시스템을 강점으로 한다.

LG전자는 자사 히트펌프와 OSO의 온수 저장 기술을 결합해 유럽 주거·상업 공간의 전기화·탄소중립 수요를 흡



여야,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합의

나 국회는 이를 전액 국비로 전환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었다. 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15~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소재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은 중앙·지방정부 공동 예산 부담 구조였으나, 이 대통령은 특유의 ‘초고속’ 업무 스타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기사 6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달

추경·외교·민생까지 속도전 내각 90% 인선, 리더십 복원

이재명 대통령이 3일자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두 번째 정부였으나, 이 대통령 특유의 ‘초고속’ 업무 스타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아울러 6개월 간 공백이었던 국가 행정을 복구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12일 만에 해외 순방도 다녀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3일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29일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초대 내각에 들어갈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고 나서 총리의 임명제정을 받아 내각 인선을 발표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총리 권한대행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임명제정을 통해 내각을 꾸린 셈이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한달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의 90%를 채운 것이다. 이는 12·3 내란 이후 콘트롤타워가 없던 행정부의 리더십을 빠르게 회복해, 국정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특기할 점은 내각 인선에 학자 출신은 거의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히려 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의원이 입각하거나, 기업 출신 인사를 데려오고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통상의 정치권에선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용인술을 보였다.

한 여론 관계자는 “이번 정부 내각에는 교수들이 없는데, 이는 일단 잘하면 가리지 않고 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재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그날 저녁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빠른 진행 덕에 정부는 곧바로 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취임 2주 남짓 지난 지난달 19일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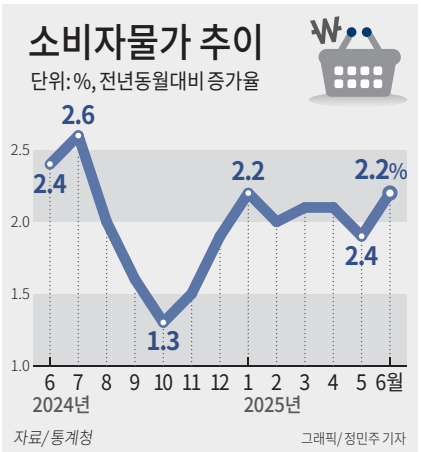
2%대 물가 재진입... 수산물·가공식품이 주도

6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2.2% ↑
정부, 품목별 추이 등 예의 주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가공식품·석유류 가격 오름세에 따른 영향이 컸다.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 폭이 다행히 3% 아래에 묶여 있으나 정부는 품목별 추이 및 자극요인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일 정부는 그간 누적된 상승에 따른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지수는 116.31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달 연속 2%를 넘어선 뒤 5월에 1.9%로 내려온 바 있다. 이후 6월



에 다시 2% 선을 넘어섰다.

수산물(+7.4%) 가격이 크게 났을 비롯해 가공식품(+4.6%), 축산물(+4.3%), 외식(+3.1%) 등 먹거리 가격이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수산물 값은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사이가

장 큰 폭으로 올랐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보다 내렸으나 하락폭(-1.8%)은 전월인 5월(-4.7%)보다 줄었다.

세부 품목별로 마늘(+24.9%), 고등어(+16.1%), 김치(+14.2%), 라면(+6.9%), 빵(+6.4%), 달걀(+6.0%), 돼지고기(+4.4%), 국내산소고기(+3.3%) 등이 크게 상승했다. 이 중 달걀은 3년 5개월 만에, 라면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 5월 내림세(-2.3%)를 기록했던 석유류 가격은 6월 국제유가 오름세에 따라 상승(+0.3%)으로 돌아섰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10.6%나 뛰었다. 또 지역난방비(+9.8%), 도시가스(+6.9%), 상수도료(+3.6%) 등도 전체 물가 상승폭을 웃돌았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 ▲추경 예비심사서 원안보다 9.5조 ↑ 총 40조 육박... 예결위 조정 /사진 뉴시스
- ▲한중 외교 국장급 협의... 양국 정상 상호 방문 관련 논의

- ▲이 대통령 “주식이 부동산 대체투자로 자리잡게 방안 내놓을 것”
- ▲조국혁신당 “검찰 간부 인사李정부 맞나 의문... 재고해야”

-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 찬반성명... 자질 자격 우려
- ▲경매도 ‘대출 6억·6개월내 전입’...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제동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라면을 살펴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달 만에 2%대로 올라서며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뉴시스

“원재료비·환율·인건비 상승 물가에 반영”

>> 1면 ‘2%대 물가 재진입…’서 계속

다만 전기료는 0.4% 내렸다. 서비스 품목 중에서는 가전제품수리비(+25.8%), 보험서비스료(+16.3%), 공동주택관리비(4.3%) 등의 개인서비스에서 상승폭이 컸다.

박병선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가공식품 등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상승폭이 커졌다”며 “원재료비 인상, 환율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이 (가공식품) 물가에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산물론 바다 수온이 높아져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고등어, 조기, 오징

어 등에서 올라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물가 상승률이) 수치상으로는 2% 내외의 흐름을 유지 중이지만 누적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있어서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생계비 부담과 체감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계속 물가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추가경정예산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기가 어렵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라, 추경으로 인한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코인투자 유도 ‘로맨스 스캠’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SNS·앱에서 외국인 가장해 접근

최근 SNS와 데이트 앱 등을 통해 외국인으로 위장한 사기범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일본, 태국 등 외국인으로 가장해 SNS·데이트 앱에서 접근한다. ‘한국 여행을 준비 중인데 여행지나 음식 추천을 받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건다. 이후 유명 인물루터서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변호사, 전문 투자자 등 전문직 종사자로 신분을 위장해 피해자와 신뢰를 쌓는다.

이들은 장기간 일상 대화를 이어가며 호감을 표시하고, 결혼이나 자녀 계획 등 미래를 함께 그리는 발언으로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든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얻은 뒤, 유망한 가상자산 투자처를 소개하겠다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입과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투자 초기에 소액을 넣으면 짧은 시간 내 수익이 난 것처럼 꾸며 보여

주고, 점차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한다. 이후 출금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돈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면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금감원은 “이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호감을 표시하거나 결혼, 미래를 언급하면서 심리적으로 조종한 뒤 투자로 연결시키는 특징이 있다”며 “SNS나 데이트 앱에서 낯선 외국인이 이처럼 접근하면 로맨스 스캠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망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며 가입과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이는 대개 불법 사이트이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영업 행위 자체가 특정 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투자 전 반드시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중 홍보 캠페인과 소비자 예방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정원 기자 zelkova@

아파트 착공실적 5년래 최저수준 하반기엔 더 줄어 ‘주택공급 비상’

국토부, 서울 등 7곳 착공 최저
서울 최근 1년 2만여 가구 불과
강원 전년대비 40% 줄어 5459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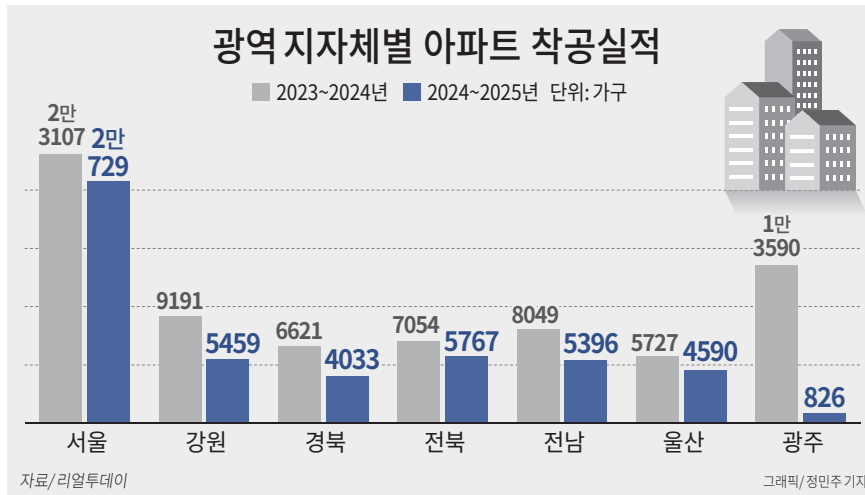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서울의 주택 착공실적이 5년래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아파트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주택건설 실적(착공)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서울 ▲강원 ▲경북 ▲전북 ▲전남 ▲울산 ▲광주 등 7곳이 최근 1년간(2024년 6월~2025년 5월) 아파트 착공실적이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최근 1년간 착공실적은 2만 729가구에 그쳤다. 2021년 5월~2022년 4월 5만 2972가구에서 ▲2022년 6월~2023년 5월 3만 6468가구 ▲2023년 6월~2024년 5월 2만 3107가구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서울·경기와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외곽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강원 역시 착공실적이 5459가구에 불과했다. 전년 9191가구 대비 40% 이상 급감했다.

부동산리서치업체인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조기 대선으로 예기치 못했던 정국 불안이 해소됐지만 하반기에도



여전한 내수 부진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공실적은 더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5월(잠정) 건설공사비 지수는 131.01으로 2020년(100 기준)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시공사와 지자체,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도 사업 지체와 착공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공급 부족과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겹치면서 하반기에 공급되는 분양 단지에 대해 관심이 더 쏠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원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

축해 짓는 ‘잠실 르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26㎡, 총 1865가구 가운데 216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춘천에서는 동문건설(시공), 씨엔위(시행위탁)가 동면 일원에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총 569가구로 공급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울산 남구 무거동 일원에 한화캐미칼 사택 부지를 재개발해 짓는 ‘한화 포레나 울산무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67㎡, 총 816가구 규모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압구정=현대’ 공식, 3구역서도 통할까

삼성물산, 압구정 2구역 수주 발빠
현대건설서 단독입찰 가능성 커져
삼성, 핵심 승부처 ‘압구정3’ 올인

서울 압구정2구역 시공사 수주전은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커지며, 경쟁 없는 무혈입성이 유력하다. 무난한 승리가 점쳐지지만, 한남3·4구역 사례처럼 이 같은 결과가 오히려 다음 구역 수주전에서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브랜드가 인접 구역을 연속 수주할 경우 차별성 부족 등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압구정3·4구역에 대한 사업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자사 브랜드 전시관인 ‘S.라운지’를 통해 정비사업 대응 전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S.라운지는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인근에 개관된 프라이빗 라운지로, 초고층 모형과 주거 설계 철학 등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삼성은 이 시설이 특정 구역 전용이 아닌 압구정 일대를 위한 공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압구정2구역은 신현대 9·11·12차를 포함해 2571가구(최고 65층)로 재건축되는 초대형 사업지다. 공사비만 약 2조 7488억원으로, 올 초 수주전이 진행된 한남4구역(약 1조 6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조합은 오는 8월 입찰을 마감하고 9월 27일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압구정2구역을 현대건설이 무난히 수주하더라도 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압구정 3구역 조감도.

/서울시

구정3구역에선 조합 내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압구정3구역은 단순 재건축을 넘어 브랜드, 사업성, 상징성이 맞물린 핵심 승부처다.

압구정3구역은 약 39만㎡ 부지에 현대1~7차, 10·13·14차와 대림빌라트 등 총 3934가구를 포함하는 대규모 재건축 구역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제출된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최고 70층, 총 5175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7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압구정 재건축 수주전 구도는 올 초 진행된 한남3·4구역 사례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남3구역을 수주한 현대는 올해 초 한남4구역에서도 우세할 것으로 평가됐지만, 최종 승자는 삼성이었다.

당시 현대는 조합 책정액보다 868억원 낮은 공사비와 함께 사업비 전액 양도성에금증서(CD)+0.1% 고정금리 조달 및 지급보증, 한강 조망 인피니티풀 등 초호화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서는 “현대건설이 또 수주하면 우리는 한남3구역의 2단지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실거주보다 투자 비중이 컸던 한남4구역 특성상 브랜드 신뢰와 자금 운용 능력에서 삼성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압구정=현대’라는 공식이 통했지만 요즘은 브랜드 다양성에 대한 기대도 높다”며 “오히려 2구역을 가져간 현대가 3구역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파월, 트럼프 행정부 직격... “관세로 금리인하 어려워져”

〈연준 의장〉

美 기준금리 ‘안갯속’

트럼프 행정부, 금리 인하 압박
파월, 고율관세 파급효과 우려
시장선 ‘9월 금리인하설’ 무게

“관세가 아니었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중앙은행 정책포럼에 참석해 패널 토론자가 “관세가 아니었으면 금리를 더 인하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관세의 규모, 그리고 관세 결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전망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보고 우리는 (인하를) 보류했다”고 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뉴시스

◆ 파월 “관세 영향 지켜봐야”

연준이 물가 지표로 삼고 있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1월 2.5% ▲2월 2.5% ▲3월 2.3% ▲4월 2.1% ▲5월 2.3%로 목표치(2%)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근원(Core) 개인소비지출 지수는 3월과 4월 2.6%, 2.5% 감소한 뒤 5월 2.7%로 상승했다. 근원 개인소비지출은 개인의 소비지출 중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 가격 변동을 제외하고 계산한 물가지수다. 여전히 소비자가 느

끼는 물가는 높다는 지적이다.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농축산업을 제외한 고용인구는 한달 전보다 3만8000명 감소한 13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일자리가 감소하면 소비 지출 등이 늘지 않아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노동통계국은 “의료, 호텔·요식업, 사회 복지 부문의 고용은 증가추세에 있다”며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0.2%에서 0.4% 상승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백악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줄인다고 했다. 경기 위축보다는 연방 정부 고용 2만2000명을 포함한 총 5만 9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비농업 고용인구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업률도 1월 4.0%에서 3월 4.2%로 오른 뒤 5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상 기다리면서 관세 영향을 지켜보는 게 신중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韓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시기가 7월보다는 9월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90일간 협상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줬다. 유예기간은 오는 7월 8일 종료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29~30일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시기에는 관세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확인하기 어려워 한차례 더 미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거래자들은 이

달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8.3%로 보고 있다. 한 달 전(74.3%)과 비교하면 4%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71.8%다. 특히 금리선물 거래자들은 9월 금리가 0.25%p 내리는데 71.8%, 0.5%p 내리는데 1.92%의 확률을 반영했다. 동결(8.9%)보다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금리인하 시기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로 미국과의 금리격차는 2%p다. 금리를 인하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투자자금이 줄어들며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금리 인하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더 부추겨 부동산 가격이 상승, 자산이 부동산에 쏠릴 가능성도 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중앙은행 정책포럼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할 때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美 상호관세 임박... 韓, 시한연장 기대감

산업부, 트럼프 행정부 협상 지속
“유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가적인 시한 연장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측과의 관세협의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비롯해 상호관세 부과 시기 연장을 기대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8일 이후 추가적인 관세협의를 없다”고 발언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21~2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3차 실무 기술 협의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8일까지 일부 국가는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떤 국가는 유예를 하고 추가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를 받지 못하고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계속 협상을 할 것인지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를 받는 국가가 있더라도 추가 구체화하는 협상을 계속하게 될 국가들이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길은 멀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계속 리밸리브레이션(재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관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내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1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7일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간담회를 갖고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의문시된다”며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57개 무역상대국에 차등화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종료된다.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트럼프 1기 이후 미국수입시장 수출경합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국의 점유율은 작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실제로 올해 1~4월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19.2% 증가한 반면, 대한민국 수입

은 5.0% 감소하면서,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 순위는 작년 7위에서 올해 10위로 하락했다.

또 국가간 경쟁구도도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 출범 전후인 2016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 수입시장 내 주요국 수출경합 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 수입시장 내 입지가 축소된 중국을 대체하며 부상한 멕시코와 인도가 우리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멕시코의 경우 2020년 7월 발효된 USMCA에 따라 이후 북미 내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자동차·부품과 기계류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했고, 인도는 정부 주도 제조업 육성전략 시행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규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상호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해 과세 기준가격을 낮추는 한편, 미국 내 생산이 어렵거나 대체 가능성이 낮은 품목으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부, 휴가철·추석 물가관리 나선다

기재부 물가관계자관회의

배추 3만t 방출·한우 반값판매 지원

정부가 올 추석 전까지 배추 3만여 톤(t)을 방출하고 한우의 반값 판매를 지원하는 등 수급 안정책을 실시한다. 또 여름 피서지 내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물가 단속에도 나선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사진)은 2일 물가관계자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 수급 안정 및 여름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1.9%)보다 소폭 상승해 전년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며 “(지난) 6·16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우선 추석 전까지 약 3개월간 배추 총 3만6000t을 시장에 방출한다. 정부 가용물량을 1만3000t 확대한 규모다. 최근 가격이 뚝 잡자의 경우 가을감자 1000t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사과와 배는 정부의 가용물량을 각각 총 1만 2000t, 4000t으로 확대해 비축하기로 했다.

또 수입산 닭고기의 공급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이달 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가 완료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다음 달 중순부터 수입이 재개된다. 브라질이 AI 청정화를 선언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평가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한우는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최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9차 물가관계자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50%까지 할인판매 지원을 실시하고, 수입산 소고기는 냉장구이류를 이달 중 40% 할인을 지원한다. 소비가 늘어나는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 6000헥타르(ha)에서 6만 7000ha로 확대한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이 실제 수요 기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이번 주 배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휴가철 물가 단속도 강화한다.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피서지의 먹거리, 숙박료, 피서용품 가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공정위 신고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이 차관은 또 “국내외 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효성家, AI 중심 새판짜기… 조직 신설에 핵심사업 정리

계열분리 1년, 미래 먹거리 발굴

조현준·조현상, AI 전략 엇갈린 행보
효성, 실적 격차 속 성장방향 재정립
HS효성, 연구인력 확충·신소재 집중

효성과 HS효성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조직과 투자 전략을 재정비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분주하다. 계열 분리 1년을 맞아 각사별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사업 구조 전환 속도를 내는 가운데 AI를 매개로 하는 경영 전략 변화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최근 미래전략실을 신설했으며 실장으로 김철호 효성벤처스 대표를 선임했다. 김대표는 투자 및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효성그룹의 중장기 성장 방향을 설계할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래전략실 신설 배경으로는 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룹 차원에서 사업 조정과 신사업 발굴, 전략 수립 등의 필요성이 커진 점이 꼽힌다. 계열사 간 실적 격차가 뚜렷해지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의 매출은 각각 1조761억원, 6394억원으로 약 68% 차이를 보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효성화학은 같은기간 59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반면 효성중공업은 102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효성그룹 마포 본사 전경.

/뉴시스

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실적 격차가 그룹 경영 전반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효성은 AI 혁신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AI중심의 투자 경험을 다수 보유한 효성벤처스의 역량을 그룹 차원에서 적

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도 평소 “AI가 효성의 미래”라고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HS효성 역시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기회를 모색하면서 형제간 AI를 둘러싼 투자 및 기술 전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AI 기술 혁명은 앞으로 깊이의 싸움”이라며 기술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HS효성은 AI 기반의 미래형 소재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기 위해 자체 기술 조직인 HS효성 종합기술원(HARTI)을 창립해 첫해부터 연구인력을 30% 이상 늘리는 등 기술 심화 전략을 실천 중이다.

조현상 부회장은 HS효성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HS효성첨단소재의 알짜 사업인 1조 5000억원 규모의 타이어용 스틸코드 사업을 과감히

매각하며 주목을 받았다. 기존 주력 사업을 점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탄소섬유, 수소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효성 관계자는 “AI를 포함해 기존 산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업들을 그룹 차원에서 폭넓게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투자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효성이 AI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룹인 만큼 내부적으로도 관련 사업을 더 키워갈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HS효성 관계자는 “AI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당사도 그룹내 사업들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하려하고 있다”라며 “HS 효성인포메이션에서는 AI, 빅데이터, IoT 활용을 통한 기업혁신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졸리비, ‘노랑통닭’ 품었다… K-브랜드 세계 수출 본격화

〈필리핀 최대 외식기업〉

‘컴포즈커피’ 이어 두 번째 인수
노랑통닭, 동남아 진출 교두보
“한국, 브랜드 수출 허브로 본다”

필리핀 최대 외식기업 졸리비푸드그룹(Jollibee Foods Corp.)이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 인수를 잇따라 단행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를 품에 안은 데 이어 최근에는 치킨 브랜드 ‘노랑통닭’까지 인수를 추진 중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졸리비의 한국법인 졸리케이는 최근 큐캐피탈파트너스와 코스톤아시아가 공동 보유한 노랑통닭 운영사 ‘노랑푸드’ 지분 100% 인수를 추진 중이다. 양측은 지난 달 10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조만간 상세 실사에 착수한 뒤 이르면 8월 중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예상 거래가는 1000억원 중반대로 알려졌다.



노랑통닭

큐캐피탈과 코스톤은 2020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노랑푸드를 약 700억원에 인수한 뒤 가맹점 수를 대폭 늘려 외형을 키웠다. 2019년 400여 개였던 가맹점 수는 올해 700개를 넘어섰고, 매출도 502억원에서 1067억원, 영업이익은 65억원에서 12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컴포즈커피

/손진영 기자

앞서 졸리비는 지난해 7월 엘리베이션PE와 함께 컴포즈커피를 약 47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컴포즈커피는 현재 졸리비가 보유한 브랜드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포 수를 가진 핵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에는 싱가포르에 진출해 이미 두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외식업계에서는 졸리비의 이 같은 행보가 한국 브랜드를 인수해 다시 해외로 역수출하려는 ‘플랫폼 전략’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졸리비는 현재 미국·캐나다·중동·유럽 등 15개국에 230여 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K-프랜차이즈를 수출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졸리비는 고급 외식보다는 가성비와 대중성을 강조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으며, 이번 컴포즈커피와 노랑통닭 인수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이다. 직접 브랜드를 육성하기보다 현지에서 이미 소비자 충성도와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 브랜드를 ‘돈으로 사들이는 방식’은 리스크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졸리비는 한국을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동남아와 북미 진출을 위한 브랜드 수출의 허브로 보고 있다”며 “한국에서 검증된 브랜드

와 운영 매뉴얼은 졸리비의 글로벌 유통망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졸리비가 본래 브랜드인 패스트푸드 체인 ‘졸리비’를 한국에 직접 출점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졸리비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노랑통닭과 같은 외식 브랜드를 통해 치킨·버거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한국 시장은 이미 맥도날드·버거킹·맘스터치·롯데리아 등 국내외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소비자 트렌드 변화도 빨라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처드 신졸리비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도 “한국 치킨 시장이 매우 크다는 건 알고 있지만 졸리비 브랜드가 진출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치킨에 대한 입맛은 매우 달라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

‘3자간 경영합의’ 변수 되나… 콜마, 경영권 분쟁 새 국면

윤여원, 임시주총 저지 가처분 신청
운동법 법적 대응… 합의위반 쟁점화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쟁점인 ‘3자간 경영합의’ 내용이 처음 공개되면서 남매 간 갈등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BNH) 대표이사 사장이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윤 부회장은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법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윤여원 사장은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최근 윤 부회장은 콜마BNH의 부진한 실적을 문제 삼으며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1일 콜마홀딩스는 콜마BNH를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전면 리포지셔닝하며 쇄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사장 측은 이에 대해 남매와 부친인 창업주 윤동환 콜마그룹 회장의 ‘3자간 경영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사장은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

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사장이 콜마BNH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사장 측은 이 같은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이자 윤 사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G7 끝나자 울산·광주로… ‘쉽 없는 행보’

〉1면 ‘추경·외교·민생까지…’서 계속

내란 이후 내수 부진이 심각해진 상황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외 경제 여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긴급히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현재 국회로 넘어간 추경은 오는 3~4일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 스타일은 정상외교에서도 나타났다.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캐나다로 날아갔다.

1박 4일의 빠른 일정 속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총 10차례의 정상회

담을 하고 G7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이 와중에 이 대통령은 민생현장도 챙겼다.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울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와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첨단 기술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에서의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어 같은달 25일에는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주로 다뤘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공항 이전 관련 TF 설치를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미래 모빌리티의 일부이자 **전부**.

어쩌면 우리의 기술은
모빌리티의 일부.

하지만 이것은 분명,
미래 모빌리티의 전부를 뒤바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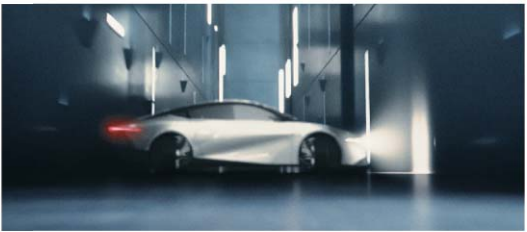
이동 경험의 전부를 바꾸는
| 자율주행 솔루션 |



시각 경험의 전부를 바꾸는
| IVI 솔루션 |



에너지 솔루션의 전부를 바꾸는
| 차세대 전동화 시스템 |



익숙한 움직임의 전부를 바꾸는
| E-코너 시스템 |

이젠 리스크 관리할 때… 청문회·부동산 안정 등 과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달

초고속 일처리에 여론 ‘호의적’
인사청문회서 출혈 최소화해야
부동산→주식 시장 흐름 유도
사법개혁, 속도 대신 내용 중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력으로 달려온 한 달에 대한 소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며 기자회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달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일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한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일을) 잘 할 것 같아서 안심’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제 첫 한달이 지났다. 전력 질주를 하다보면 빠뜨리는 것도 있다.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이번달은 ‘인사청문회의 시간’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까지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므로, 국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회에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것이라서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버리고 있었으나, 청문회는 ‘한 방’ 없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니, 총리의 국회 인준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버리고 있다. 시쳇말로 ‘다’는 못 막아도 한 명은 꼭 떨어뜨린다’는 각오인 셈이다. 만일 청문회를 통과하

지 못하고 낙마하는 장관이 생긴다면, 국정 운영 초반부터 약간의 ‘출혈’이 생긴다. 청문회 정국에서 출혈을 최소화해야 향후 국정과제를 이행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돌파했지만, 이 대통령 앞엔 부동산 안정이라는 과제가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1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 의무 거주나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

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아 ‘조강력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계열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었으므로, 초반부터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도는 현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과 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가는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목표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견조해야, 이 대통령의 그림도 완성될 수 있다.

사법개혁도 관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건한 성향의 정성호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사법개혁은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의 공소청·수사청 분리를 통한 견제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기소청 변경 등을 공약했다. 이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동일한 취지다.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을 검사 출신으로 둔 것은 관계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라는 평가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일각에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연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野,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포함 상법개정안 처리

與野 함께 처리한 ‘1호 협치 법안’
대주주·우호지분권 영향력 감소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소수주주 보호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협상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가운데,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의결권 3%제한(3%룰)을 적용하기로 하고, 보완사항은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주총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오전 회의에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오후에 양당 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수석과 법사위 간사가 만나 가깝스로 합의했다. 속개된 오후 소위에서 여야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양당 원내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했다. 오전에 세 가지 쟁점없는 합의 사항을 포함해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데 3%룰을 적용하고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사외이

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안소위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같은 경우, 선출할 때 대주주의 지분만 계산해서 3%룰을 계산하는데, 감사나 사내이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을 한다”며 “감사나 사내이사를 뽑을 땐 대주주의

지분권 제한이 훨씬 강화돼 있다. 그런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엔 그것보다 완화돼 있는데, 기준이 서로 맞지 않아서 기준을 상향시켜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의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3%룰’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는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3%룰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가운데,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세력 주도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상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가 자신을 대변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렵고, 해외 헤지펀드 등 외국자본이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법사위 야당 간사는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서 여야 이견보다는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의된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1호 협치 법안이 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송언석,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 安 “코마 상태 野, 살려낼 것”

송 “당 변화 추진할 혁신안 마련
安, 당 개혁 최적임자라고 생각”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사진)가 2일 자신이 공약한 혁신위원회의 수장으로 4선 중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 갑)을 임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



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3대 활동 방향의 첫 단계로 ‘혁신안’ 마련을 언급하며 안철수 의원이 적임자라고 밝혔다.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라며 “당에 남아있는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 시대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 내놓은 5대 개혁안을 당 내 이견으로 수용하지 않고 추후 혁신위에서 포함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임명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며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ANGELINUS

고령운전 사고 급증… 자율주행·보험법 개편 절실

면허 반납만으론 한계 지적
로보택시·구독형 이동 급부상

제조사 책임 전환 법 개정 필요
보건·복지 연계 대책 마련돼야

고령 운전자 사고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면허를 줍히는 방식’만으로는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세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뒷받침할 보험·책임 체계가 결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은 20%로 2015년(6.8%)의 세 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고령자의 면허 비중은 7.6%에서 14.9%로 늘었고, 면허 100명당 사고 건수는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일반인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75세 이상 3년), 치매 선별검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운전 중지를 권



Chat GPT가 생성한 고령 운전자 이미지.

유하고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진 반납률은 2.2%에 그쳤다.

문제는 대체 이동수단 부족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자 운전: 기술 변화와 보험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단속 일변도 접근은 ‘이동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면허 반납은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이동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도달 가능성이 균등하지 않으면 빈곤, 건강 저하, 사회적

고립이라는 2차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해법으로는 ‘로보택시’가 급부상한다. 로보택시는 올해 1월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등장한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로 오는 2030년 이내에 상용화가 유력하다.

호출형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 고령자·장애인·청소년도 플랫폼 구독만으로 병원과 마트를 오갈 수 있다. 이동이 ‘소유’에서 ‘구독’으로 전환되면 보험 구조도 함께 바뀐다. 이에 따라 로보택

시 사고 책임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운전자가 사라지면 사고 책임은 차량 제조사·자율주행 시스템 운영자·플랫폼으로 이동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운전자·소유자 책임 전제)만으로는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

자율주행차 확산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약화하고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술 구조나 귀책판단과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우선 보상받고 보험사가 자동차 제작사, ADAS 개발사, 운영 플랫폼(MaaS) 등 책임주체 간 구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김해식 연구위원은 “호출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는 임베디드보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합을 담보하는 제조물배상(PL) 보험 등 새로운 보장 구조가 떠오를 것”이라며 “고령자 운전 안전 대책은 고령자의 ‘지역 내 계속 거주’와 ‘교통 정의’의 큰 틀에서 논의되고 보건, 복지, 교통, 보험을 결합한 통합적 이동관리 체계 안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포인트 최대 12% 적립
GS 올 신한 카드 출시

신한카드는 2일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인 ‘GS 올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GS 올 포인트를 최대 12%까지 적립할 수 있다. GS25에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제공한다. 이어 GS샵과 GS 더 프레시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이용금액의 5%를 적립한다. GS페이에 등록해 결제하면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2%를 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추가로 준다. GS리테일을 제외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는 전월 40만원 이상 이용 시 이용금액의 0.1%를 적립 한도 없이 제공한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1만5000원, 해외 겸용(VISA) 1만8000원이다.

KB국민카드

ESG 주요 성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KB국민카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경영보고 기준인 ‘GRI 스탠다드’에 따라 작성했다. 제3자 검증을 거쳐 보고 내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각 분야에서 주요 성과와 노력을 담았다. 앞으로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글로벌 ESG 경영 선도 기업인 KB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룹 전략과 연계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

우리은행과 업무협약
공동 마케팅 등 협업

삼성카드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과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협업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업권을 선도하는 우리은행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성공적 시너지 모델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 관계자는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KB국민은행, 포용금융·시니어 서비스 강화 나선다

골든라이프부 신설 등 조직개편
내부체계 강화로 대외 신뢰도 제고

KB국민은행이 포용금융 추진과 시니어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조직개편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추진중인 전략 목표 하에 하반기에는 ▲포용금융 추진 ▲시니어 특화 서비스 ▲고객 비즈(Biz)별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사회공헌사업 및 포용금융을 담당하는 포용금융부를 신설했다. 포용금

융부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하는 등 사회 및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니어 고객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영위 및 경제적 행복 증진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골든라이프부도 신설했다. 골든라이프부는 시니어비즈 전략 수립,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패키지 개발, KB골든라이프센터 운영, ‘시니어 고객 전용 통합 플랫폼’ 단계적 구축 등

을 총괄하며, 은퇴·노후 설계 및 자산관리 중심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고객별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고객분석부를 신설했으며, WM 및 중소기업(SME) 고객을 전담하는 WM추진부, SME분석추진부 내에는 데이터 분석 전문 직원들로 구성된 고객 분석 전담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각 고객군별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보다 정교한 고객 세분화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고객그룹이 자체적으로

하나금융 19기 홍보대사 발대… 글로벌 ESG·나눔 앞장

33대1 경쟁 뚫은 50명 대학생 선발
내달 말까지 다양한 그룹 미션 실천

하나금융그룹이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발대식을 하고, 새롭게 선발된 스마트 홍보대사 50명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하나금융의 스마트(SMART) 홍보대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누적 1011명의 대학생이 활동을 수료했다.

올해는 33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총 50명의 대학생이 오는 8월 말까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란 그룹 미션을 실천하고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된 제19기 스마트(SMA



발대식에 참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둘째줄 가운데)이 스마트 홍보대사들과 함께 ‘하나’를 의미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RT) 홍보대사는 활동 기간 동안 ▲그룹 주요 금융상품 분석 및 체험 ▲그룹 스포츠단 연계 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 ▲그룹 캠페인 연계 사회공헌활동 ▲신사업 기획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

한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해외의 교육·문화 취약 지역 학교를 찾아가 ‘해피 클래스(Happy Class)’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그룹의 나눔 문화 확산

에 기여하고 글로벌 ESG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에게 미션 수행을 위한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하고, 수료자 전원에게는 하나금융의 해외지점 견학 기회가 부여한다.

특히,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향후 하나금융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젊은 세대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로 금융을 재해석해 대학생 홍보대사로서 하나금융그룹에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해 주길 기대한다”며 “이번 스마트 홍보대사 경험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대학생 리더들에게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차량 개발에 일반인 참여… 강남에 ‘미래차 연구소’ 오픈

현대차·기아, UX 스튜디오 서울

“고객이 차량 UX 개발과정 참여
세계 첫 체계적·상시적 플랫폼”

1층 오픈랩 공간에서 모형 체험
2층에는 UX 연구 ‘몰입형 공간’

“차량 개발 과정에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편리함을 넘어 감동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현대차·기아 피쳐전략실 김효린 상무)

현대자동차·기아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미래차 연구소를 오픈했다. 현대차·기아의 차량 연구원은 물론 일반 고객들도 이곳에서 차량 개발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사용자 경험(UX) 연구 거점이다.

지난 1일 방문한 현대차·기아 ‘UX 스튜디오 서울’은 고객과 소통을 통한 기술 개발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차·기아 피쳐전략실 김효린 상무는 “여러 완성차 업체도 다양한 형태의 고객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일반 고객이 차량 UX 개발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체계적이



‘UX 인사이트’ 구역에서 참가자들이 UX 연구 콘텐츠를 체험하는 모습(왼쪽부터 시계방향). 현대차·기아 UX 스튜디오 서울 전경. 2층 ‘시뮬레이션 룸’에서 실제 주행 환경을 구현해 UX 콘셉트를 검증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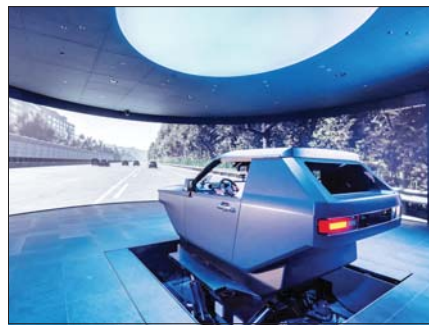
고 상시적인 연구 플랫폼은 UX 스튜디오 서울이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UX 스튜디오 서울’은 크게 UX 전시 콘텐츠를 체험하고 리서치에 참여할 수 있는 1층 ‘오픈랩’과 몰입형 UX 연구 공간인 2층 ‘어드밴스드 리서치 랩’으로 구성된다.

1층은 오픈랩 공간으로 현대차·기아의 전반적인 UX 연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선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반적인 UX 연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UX 인사이트 구역은 도어, 시트, 무빙 콘솔 등 다양한 UX 콘셉트가 반영된 모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UX 콘셉트 구역에는 나무로 만든 스테디 벅(사용성 검증 등 목적의 실험용 모형)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차량 공간 구성, 시트 및 수납 기능, 이동 콘솔 등 다양한 UX 콘셉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VR 기기를 통해 차량에 적용된 UX를 몰입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UX 검증 구역에서는 검증 벅을 통해 주행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다. 가상 주행 환경이 전방 LED 월에 표시되며, 검증 벅에 탑승해 실제 운전 상황처럼 다양한 기기를 조작해 볼 수 있다.

SDV존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다. SDV존에는 플레오스 커넥트가 장착된 SDV 테스트베드 차량에 탑승해 다양한 기능을 조작해 볼 수 있다.

1층에서 방문객들의 체험 데이터를

구축했다면 2층의 어드밴스드 리서치 랩은 연구원들과 사전 모집된 사용자들이 함께 UX 연구를 수행하는 몰입형 공간이다.

UX 캔버스는 연구원들과 고객이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곳으로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피쳐 개발 톨은 자율주행 UX, 고성능 차량 UX,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HMI) 등 분야별로 세분된 연구 공간을 통해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빠르게 UX 콘셉트를 개발해 검증할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가상 환경을 통해 차량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톨은 새롭게 개발한 UX 콘셉트가 주행 시 어떤 사용성을 보이는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는 서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도 델리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실제 지도를 기반으로 가상 환경이 구현돼 있어 더욱 몰입감 있는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김 상무는 “UX 스튜디오 서울은 단순 체험 공간이 아닌 차량 개발 과정에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로템, 3대 신형사 신용등급 일제 상향

NICE신평·한신평서 ‘A+등급’ 받아
영업실적·재무건전성 ‘긍정적’ 평가

현대로템이 투명경영 활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 조정받았다.

현대로템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NICE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을 기존 A0에서 A+로 상향 조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한국기업평가는 현대로템의 단기 신용등급을 기존 A2에서 A2+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상향은 지난 2023년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졌다.

NICE신평은 현대로템의 영업 실적과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용등급 상향의 근거로 현대로템이 2022년 K2 전차 폴란드 수출 이후 디펜스솔루션사업부의 매출 증가 추세 및 영업 흑자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4조376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



현대로템의 K2 전차.

중 디펜스솔루션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레이솔루션사업부는 올해 1분기 16조8611억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해 향후 역대 최대 규모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신평은 현대로템 디펜스솔루션사업부가 탄탄한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대로템 주요 사업부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신평은 현대로템이 고부가가

치 기술인 고속철도 차량 제작 분야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철도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로템은 2023년 국내 3대 신용평가사와 한신평과 NICE신평, 한기평에서 신용등급 ‘A0’을 받았다. 이후 2년 만에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외 신인도 상승 및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재무건전성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차입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부채비율은 지난해 2분기 177.5%를 기록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200% 미만으로 진입했다. 지난 1분기에는 부채비율이 144%를 기록했으며, 차입금과 현금성자산이 각각 2583억원, 7641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무차입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설치 편의’ 삼성 시스템에어컨, 판매 40% ↑

구매자 2명중 1명 거주중인 집에 설치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 가정용 시스템에어컨을 구매한 2명 중 1명은 실제 거주 중인 집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이어나 리모델링으로 집이 비어 있는 경우가 아닌, 생활 중인 공간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한 비중이 올해 상반기 55%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수치는 2023년 24%, 2024년 48%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측은 ‘원데이 설치 서비스’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최대 8시간 만에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완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장 단내립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인테리어핏



모델들이 거주 중인 집에서 8시간 만에 설치가 가능한 삼성전자 가정용 시스템에어컨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키트’를 도입해 구축 아파트나 주택에서도 설치 편의성을 높였다. 설치 제약이 줄어든 덕분에 판매도 크게 늘었다. 삼성스토어 기준, 올해 1~6월 가정용 시스템에어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전자 ‘슈퍼맨’ 아트워크 10점 무료공개

삼성전자가 영화 ‘슈퍼맨’ 개봉을 앞두고 아트워크 10점을 무료로 공개하고, 대형 TV 마케팅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내달 31일까지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슈퍼맨’ 아트워크 10점을 독점 무료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 아트스토어는 삼성 TV를 통해 4K 화질로 세계 유명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구독형 콘텐츠 서

비스다.

이번 아트워크 공개는 워너 브라더스가 배급하고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한 ‘슈퍼맨’ 영화 개봉을 기념한 것이다.

해당 작품은 새롭게 재편된 DC 유니버스 세계관의 첫 실사 장면으로, 영화 전문 사이트 IMDB가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영화’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영화는 오는 9일부터 전 세계 극장에서 순

차적으로 개봉한다.

삼성전자는 영화 공개와 함께 ‘슈퍼빅 TV’라는 슬로건 아래 슈퍼맨과 삼성 대형 TV를 접목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옥외광고 등을 통해 다양한 영상 트레일러를 공개하며 TV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트워크 무료 공개와 함께 소비자에게 새로운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고,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국내 9개 협력사와 상생협약 체결

국내 해상풍력의 선두주자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국내 협력사들과 손잡고 공급망 활성화에 나선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부산벡스코에서 개막한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에서 국내 9개 협력사와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력사는 산일전기, 삼일씨엔에스, 성현, 신라정밀, 엘에스케이, 우림피티에스, 은성오앤씨, 인텍전기전자, 휴먼컴퍼지트다.

이번 협약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 확

대에 필수적인 공급망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협약 당사자들은 ▲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 ▲ 기술 개발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 상생 기반의 안정적 공급망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행사 기간 중 별도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 3MW, 5.5MW, 8MW, 10MW 한국형 해상풍력발전기 라인업 ▲ 국내 최초 및 최대 해상풍력 공급 실적 ▲ 창원 분사 내 해상풍력발전기 생산 시설 등을 소개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소기업 40% “하반기 경영환경 더 어려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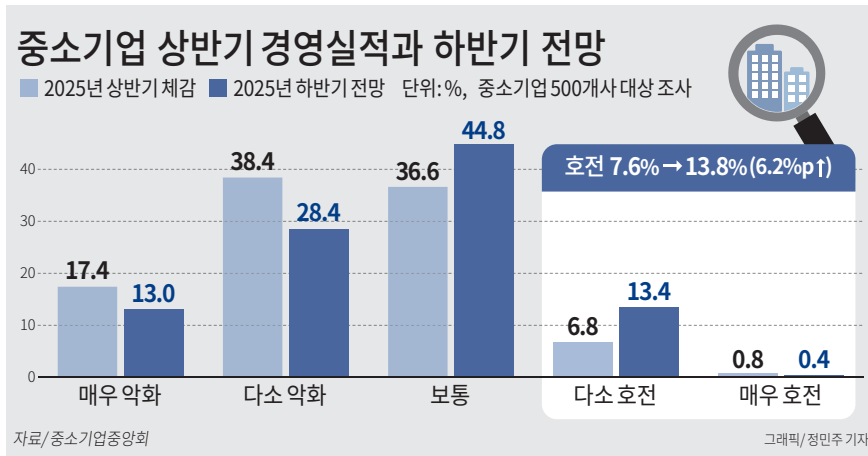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500개사 대상 조사
예상 애로요인 ‘내수부진’ 꼽아
“내년 이후에나 경제 좋아질 것”

올해 하반기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중소기업이 ‘호전’보다 3배나 많았다. 매출, 수익성, 자금, 인력 등이 모두 암울한 분위기다. 응답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이후에나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애로 및 2025년 하반기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해 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경영환경에 대해 41.4%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호전’은 13.8%에 그쳤다. ‘악화’가 ‘호전’보다 꼭 3배가 많은 모습이다. ‘보통’은 44.8%였다.

부분별 전망은 매출(판매)의 경우 ‘악화’(39%)가 ‘호전’(14.8%)보다 월등하게 많은 가운데 영업이익(수



익성), 자금사정 모두 비슷한 양상이다. 인력도 ‘부족하다’는 전망이 13.6%로, ‘남아돌 것’(6%)보다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예상하는 애로요인 1순위(복수응답)로 ‘내수부진(경기침체)’(49.8%)을 꼽았다. 이외에 ‘원자재 가격 상승’(41%), ‘인건비 상승’(38.4%), ‘자금조달 곤란’(21.2%)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은 하반기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경영내실화’(27.6%)를 적극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영 리스크 관리’(21.6%), ‘핵심인력 유지 및 역량강화’(17%)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형 성장’(10%)을 모색하겠다는 답변도 일부 있었다.

경제 회복을 예상하는 시점은 ‘2027년 이후’가 35.6%로 가장 많았다. ‘내년 상반기’라는 답변도 31.8%로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52.6%) ▲금융지원(45.8%) ▲인력난 해소(28.4%) ▲원자재 수급 안정화(26.2%) 등을 주로 꼽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주요 애로로는 역시나 ‘내수부진’이 1순위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43.6%)과 ‘인건비 상승’(39.6%)도 애로가 컸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전망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하반기에도 내수부진이 주요 경영 애로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중·단기적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52.6%) 세부담 완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만큼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지원하고, 인력난 해소와 원자재 수급 안정화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HMM, ‘TTIA’ 확장 개발

HMM은 현재 운영 중인 스페인 알헤시라스 컨테이너 터미널(TTIA)을 확장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HMM은 지난달 30일 스페인 알헤시라스 항만청에 TTIA 남측 부지 1단계 개발을 추진한다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 총 투자금액은 1억5000만 유로(한화 약 2400억 원) 규모다. HMM은 이 중 3500만 유로(약 56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나머지 금액은 2대 주주인 CMA CGM과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TTIA는 총면적 30만㎡에 연간 처리량 160만 TEU의 현대식 반자동화 터미널이다. 이번 1단계 확장 개발을 통해 2028년까지 총면적 46만㎡에 연간 처리량 210만 TEU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2단계 개발까지 완료되면 연간 28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데, 원활한 개발을 위해 터미널 운영 기간을 기존 2043년에서 2065년까지 22년 연장한다.

HMM 관계자는 “알헤시라스 터미널은 남유럽의 주요 환적 허브이자 스페인의 수출입 관문으로 터미널 수익 창출은 물론 유럽 노선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해외 터미널을 적극적으로 투자,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시멘트협회 “업황 위기, 기술혁신 기회로 삼아야”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

전근식 협회장, 불황 극복 메시지
“탄소중립 통해 지속 가능성 실현”

시멘트업계가 회색빛 업황 속에서 시멘트의 날을 보냈다.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 사상 최악의 시멘트 내수 위축, 갈수록 늘어나는 친환경 투자 요구 등으로 어느때보다 암울한 시기를 맞으면서다.

특히 업계는 침체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 시멘트 연간 내수 출하량이 80년대 수준인 4000만 톤(t)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선 3000만 t 중반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극단전 우려도 나온다.

2일 시멘트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쌍용C&E는 올해 1분기 180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지난해 동기 영업이익은 102억원이었다. 매출도 지난해 1분기 3762억원에서 올해엔 3099억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분기 당시 16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던 성신양회도 올해 들어선 6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매출도 2827억원에서 2286억원으로 하락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에서 (앞줄 왼쪽 4번째부터)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시멘트협회 전근식 회장 겸 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대표, 쌍용씨앤이 이현준 대표, 성신양회 한인호 대표, 아세아·한라시멘트 임경태 대표, 삼표시멘트 이원진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멘트협회

삼표시멘트는 올해 1분기에 2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당기순손실 5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1분기) 영업이익은 176억원, 당기순이익은 56억원이었다.

올해 들어 적자는 아니지만 한일시멘트는 지난해 1분기 당시 556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올해 들어선 17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도 4116억원에서 2982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아세아시멘트 역시 매출(2628억→2205억원), 영업이익(326억→100억원)이 모두 감소했다.

앞서 한국시멘트협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멘트 내수 출하량은 812만t으로 전년 동기의 1039만t에 비해 21.8%나 줄며 IMF 직후인 98년 1분기 출하량(886만t)보다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전근식 시멘트협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시멘트업계는 건설경기 침체, 제

조원가 상승, 환경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는 중대한 변곡점에서 있다”면서 “위기를 ESG 기반의 산업전환과 기술혁신의 기회로 삼아 혼합시멘트 확대, 순환자원 재활용,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이어가는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소공연,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촉구

소상공인 금융정책 간담회
‘소상공인 설립 주도’ 원칙 재확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소뱅크 설립준비위원회와 ‘소상공인 금융정책 간담회’

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선정 방침과 관련해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애초 취지대로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형태로 만들어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5월28일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나선 소소

뱅크 설립준비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중은행은 2025년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한 3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같은 기간 특수은행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7%가 증가한 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들의 역대급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자 장사만 나서는 왜곡된 금융시스템도 소상공인 위기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이제야말로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이 절실하다”면서 “소상공인 전문은행 인가를 표방한 제4인터넷은행이 설립취지에 맞게 신속히 인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글로벌 물류전문가 영입

CJ대한통운이공식
이었던 글로벌사업부
문 대표에 글로벌 물
류 전문가 조나단 송
전익스피다이터스인
터내셔널 부사장(사
진)을 영입했다.



2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송 대표는 30여년간 물류업계에 몸담으며 익스피다이터스에서 60여개국의 영업·마케팅을 총괄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송 대표는 글로벌 물류 시장 내 영업 마케팅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온 전략가”라며 “그의 리더십이 회사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첨단 물류기술과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영토 확장은 물론 ‘글로벌 탑10’ 비전 달성과 공급망 주도권 확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대동그룹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대동그룹이 ESG 경영 고도화, 지배구조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신설했다.

대동그룹은 대동과 계열사인 대동모빌리티, 대동기어, 대동금속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담은 ‘2025 그룹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발간한 ESG 보고서는 그룹 차원의 ESG 경영체계 구축과 환경 및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고도화 등 한층 발전된 내용을 포함했다.

권기재 대동 그룹경영실장은 “LCA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LG HelloVision

Hellorental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위너 에어컨 18+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 18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삼성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7,900원 → **월 900원**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6,500원 → **월 1,500원**



삼성 AI Q9000 에어컨 17평+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삼성 스탠드 에어컨 17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일시불로 ~~안 샀다~~
헬로렌탈로 **잘 샀다!**

에어컨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 표기된 월 요금은 LG헬로비전 국민카드 월 70만 원 이상 사용 시 17,000원 할인 적용가 (~24개월)
※ 본 광고의 내용은 가전사 사정에 의해 모델명, 가격 (2025.06.01 기준), 외관이 변경되거나 조기 단종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로 ‘인텔리전트 팩토리’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도모

ITS 기업 상반기 결산

④ 포스코D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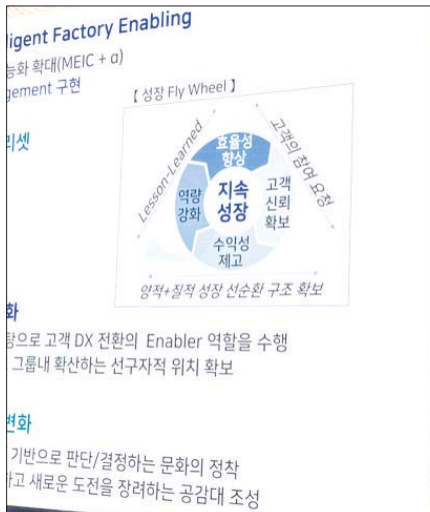
올해 상반기 포스코DX는 산업 현장을 넘어 사회와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의 경계를 넓히며 영향력을 확대했다. 산업용 AI(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영상 인식 AI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이어가며, 단순한 디지털 전환(DX)이 아닌 ‘지속 가능한 DX’를 구현해냈다.

◆ 산업 현장을 디지털로 재현… ‘피지컬 AI’ 확산 가속

포스코DX는 AI와 로봇 자동화 분야에서 인에이블러(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IT와 OT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대상 사업 진단, 컨설팅, 제안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고객가치 혁신추진TF’를 신설했다.

또 전략적인 경영혁신을 총괄하는 ‘경영혁신추진반’을 새롭게 만들어 AI 기반의 업무 혁신을 실현하고, 내부 조직·제도 혁신, M&A 추진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포스코DX가 내세운 핵심 과제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확산이다. 인텔리전트 팩토리는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



심민석 포스코DX 사장이 지난 1월22일 판교 사옥에서 열린 창립 15주년 축하 기념식에서 발표하고 있다.



심민석 포스코DX 사장이 지난 1월22일 판교 사옥에서 열린 창립 15주년 축하 기념식에서 발표하고 있다.

AI·로봇 자동화 조력자 역할 강화
피지컬 AI 기술로 생산효율 극대
산업현장서 축적한 AI 기술 역량
AI 로드킬 예방 시스템에 활용
해양생물 모니터링 시스템 통해
생물 다양성·보전·관리 지원

하고 자율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용 AI, 로봇, 디지털 트윈 등 첨단 DX 기술을 결합해 만든 공장 시스템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현재 빅데이

터와 AI 기반의 조업이 이뤄질 수 있는 제철소, 이차전지소재 공장을 대상으로 인텔리전트 팩토리가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DX가 주력하고 있는 ‘피지컬(물리적) AI’ 기술은 산업계에서 크게 주목받는 분야다. 포스코DX는 작업자가 제품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크레인을 수동 조작해 옮기는 과정에 AI를 접목한 ‘AI 기반 무인 크레인’을 개발했다. 제품이 비스듬히 놓여 있거나, 층층이 적재돼 놓렸거나, 불규칙하게 적재된 경우 크레인의 후크를 어디에

걸어야 할지 등을 AI가 스스로 판단해 제품을 들어 올리고 나른다.

포스코DX는 포스코스틸리온 포항 도금공장에 피지컬 AI를 적용해 크레인을 무인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트레일러로 운반돼온 코일 제품을 크레인으로 하차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AI 모델을 올 상반기 개발하고, 이를 아이작 심(가상 환경에서 실제 센서와 시스템 등이 물리적 환경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으로 가상화해 이르면 내달 가상 시운전을 실시한 후 내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포스코DX는 AI·IT·OT 기술을 토대로 한 ‘제조 설비의 자율 물리 시스템화’를 목표로 ‘피지컬 AI’ 기술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환경 시뮬레이션과 현장 테스트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AI 모델과 제어 시스템 기능을 강화해 인텔리전트 팩토리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SG 기술로 로드킬·해양생물 보호 나서

ESG 경영 역시 포스코DX가 내건 주요 키워드다. 포스코DX는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AI 역량을 사회 공헌 분야

로 확장하며, 기술의 가치를 새롭게 증명해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AI 로드킬 예방 시스템’이다. 포스코DX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주요 도로 구간에 스마트 CCTV와 라이다 센서를 설치했다. AI가 실시간으로 야생동물의 도로 출현 여부를 감지해 LED 전광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양평 국도 6호선, 오대산 국립공원 등에 적용돼 있다.

해양생물 보호에도 포스코DX의 기술이 사용된다. 국립공원공단과 개발한 ‘해양생물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 사천 인근에 구축됐다. 스마트 CCTV와 비전 AI 기술로 육지 서식 계류나 토종 고래 상행이 등 해양보호종의 출현을 탐지하고 개체 수, 이동 경로, 출몰 패턴 등을 분석해 축적한 데이터를 생물 다양성 보전과 관리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포스코DX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겨냥하며, 지속 가능한 DX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금년 하반기 포스코DX는 산업용 AI·로봇 고도화와 ESG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빅테크기업, 디지털 규제 대응 분주한데… ‘韓만 그대로’

DSA·DMA 영향력 현실화
애플, 수수료 체계 전면개편
규제공백에 빅테크 ‘韓 패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강도 높은 디지털 규제에 줄줄이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SNS 알고리즘 투명화부터 콘텐츠 책임 강화, 앱마켓 수수료 인하까지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의 영향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대부분 ‘EU 한정판’이다. 같은 플랫폼을 쓰는 한국 사용자들은 여전히 투명성 없는 알고리즘, 30% 수수료,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무책임 속에 방치되고 있다.

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E



애플은 지난달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다른 추가과징금 경고에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개편한 새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PIXABAY 무료 이미지

U의 디지털 규제가 이제는 단순한 내부 정책을 넘어 글로벌 통상 갈등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

프 전 미국 대통령은 DSA와 DMA를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실상의 과세’로 규정하며 무역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초안에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 면제’ 가능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EU 집행위는 “DSA와 DMA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책 자주권을 강조했다. 다만,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일부 조정을 수용하지는 내부 논의도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지난달 27일, EU 집행위원회가 DMA 위반에 따른 추가 과징금을 경고하자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 새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개발자에게 최대 30%까지 부과하던 수수료는 15%로 낮아졌고, 앱

내 외부 결제 유도도 허용됐다. 이는 최대 5억유로(약 793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빅테크의 수익 모델조차 바꿀 수 있는 DMA의 실질적 위력을 보여준다.

빅테크 규제 흐름은 주요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6월, SNS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EU의 DSA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규제를 입법까지 마친 한국에선 여전히 30% 수수료가 유지되고 있어, 빅테크의 ‘한국 패싱’과 정부의 규제 공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애플

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섰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과징금은 아직 집행되지 못한 상태다. 최종 확정을 위해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전 위원장의 탄핵 이후 현재 이진숙 위원장 단독 체제로 운영되며 정족수(2인 이상) 부족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면서 빅테크 제재도 함께 표류하고 있다.

IT기업 관계자는 “빅테크들이 유럽에선 수수료를 낮추고 알고리즘을 공개하면서도, 한국에선 법의 허점을 피해 기존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은 각종 규제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글로벌 기업과 같은 경쟁 환경에 놓여 있어 사실상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LG U+, 오프라인 채널로 中企 판로 지원

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맞춤’
중소기업 제품 판매공간 마련

LG유플러스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복합문화공간인 ‘일상비일상의 틈byU+ (일상비일상의 틈)’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공간을 마련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 공간은 서울 강남역에 있는 ‘일상비일상의 틈’과 부산 서면 ‘일상의틈’ 매장이자. 일상비일상의 틈 3층에 위치한 전시공간에는 총 59

개의 중소기업이 만든 휴대폰 액세서리, 리빙 아이템, 뷰티 아이템 등이 전시되며 부산 서면 일상의틈에서는 4개 기업의 제품이 전시된다.

LG유플러스는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제품 체험 데이터도 분석해 중소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LG유플러스가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제품 개발 및 연구, 마케팅 방향성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판매 성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매장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품 판매는 디지털커머스 ‘U+콕’이



LG유플러스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복합문화공간인 ‘일상비일상의틈byU+ (일상비일상의틈)’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공간을 마련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

지원한다. 기업에 부과되는 판매 수수료를 인하여 유통 부담을 줄였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프렌즈, ‘오징어게임 3’ 브랜드 협업

온라인 방탈출 게임 공개

카카오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와 협업해 만든 카카오프렌즈 IP(지식재산권) 기반 참여형 콘텐츠와 굿즈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춘식이 게임 The Final Game’은 지난해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브랜드 협업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오픈채팅, #(샵) 검색, 선물하기 등 다양한 기능·서비스와 프렌즈 IP를 결합해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세계관을 카카오톡 안에서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날카카오는 오픈채팅 기능을 활용한 온라인 방탈출 게임 ‘춘식이 게임 The Final Game’도 공개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숨바꼭질’ 에피소드를 모티브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참여코드를 기반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탭 상단에 노출된 ‘춘식이 게임’ 키워드를 누르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 목록이 열린다. 각 방 커버 이미지에 제시된 퀴즈의 정답을 참여코드로 입력하면 다음 방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무지개 문이 그려진 방에 도달하면 최종 미션을 완료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증권사, 발행어음 속속 신청… 심사기준 불확실성 ‘변수’

관련 시행령·개정안 입법 지연
사전자료 위주로 신청서 제출
당국 “인가 수 제한 없이 심사”

전산장애·제재 가능성 등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연내 발행어음 인가를 따내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청 첫 날인 1일부터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이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메리츠·하나·신한투자증권도 이달 중 신청할 계획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만 신청 가능한 고유 업무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어음을 발행해 기업 금융,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까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4곳만이 인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규제 전환기이자 인가 심사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금융



여의도 증권가 전경

/손진영 기자 son@

당국은 지난해 ‘증권업 IB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개편을 예고했고, 내년 부터는 지정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발행어음이나 IMA 진입 전에 2년 이상의 종합

대주주 제재 이력 등 결격요건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아래 인가 신청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현행 요건으로 접근 가능한 올해 안에 인가를 받아야 중장기 사업

확장에 유리하다”며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경우 최소 2년은 발행어음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변화만큼이나 심사 실무의 불확실성도 크다. 금융위는 3분기 접수를 예고했지만, 정작 관련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심사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자료’ 위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이뤄져야 심사기준도 구체화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며 “제출은 하되 어떻게 판단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증권사별 리스크 이슈도 인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에 첫 타자로 나선 키움증권은 HTS·MTS 전산장애가 올해만 세 차례 반복돼 금감원의 수시검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CFD 관련 제재 리스크, 국고채 담합 조사 등 겹쳐 있는 규제 이슈가 심

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 금감원은 전산 오류가 1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전자금융사고로 간주하고, 반복된 장애에 대해선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인가심사에서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도’를 중요 요건으로 판단하는 만큼, 키움증권의 인가 여부는 쉽지 않은 판단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신청사인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한 차례 인가를 추진했다가 대주주 리스크와 ‘유령주식 배당’ 사태로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후 7년 만에 재도전에 나섰고, 최근 TF를 꾸려 준비를 마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2~3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증권위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인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내 인가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격 여부에 따라 순차 심사할 예정이고 시행령 개정도 늦지 않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025년 활동 보고서’ 발간

수입 57.5억… 지출 96% ‘장학·복지사업’ 공익 집행

PDF·e-book·영상 형태 제작
18년간 7444명 장학생 해외 파견

최근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화두(話頭)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글로벌 환경변화와 갈수록 커져가는 계층 격차로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 고객 동맹, 정직한 회사’라는 경영 철학을 가진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중심이 돼 일찍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창업주 박현주 회장 역시 “사람을 키우고 기회를 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해 주요 활동과 재무 현황을 담은 ‘2025년 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매년 연간 사업 결과와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발간 중으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025년 활동보고서.

/미래에셋증권

주요 활동, 재단 설립 후 추진한 프로그램 성과, 재무 상태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의 대표 프로그램인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사업’은 2007년 시작 이후 18년간 7444명의 장학생을 50개국에 파견했다. 미국(2374명), 독일(1005명), 중국(598명), 프랑스(450명), 영국(323명) 등이 주요 파견국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학생 간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됐다. 현재까지 1975명이 참여했고, 이 중 약 300명은 ‘글로벌 특과원’으로 선정돼 파견국 현지 소식을 전했다. ‘Sharing Day’, ‘MEET-UP Project’ 등도 진행돼 봉사활동과 혁신 분야 전문가 특강, 멘토링 등을 통해 장학생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청소년 교육 복지 사업도 이어졌다. ‘글로벌 문화체험단’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심천의 혁신기업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비전 프로젝트’, ‘금융 자립 프로젝트’ 등을 통해 창의성과 진로 역량 향상을 도왔다.

2024년 재단의 총 수입은 약 57억 5000만 원, 총 지출은 약 54억 8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96%가 장학 및 복지사업 등 공익 목적에 집행됐다. 특히 기부금은 미래에셋 계열사의 매칭그랜트를 통해 개인 기부금의 2배 규모로 조성돼 목적사업에 활용됐다.

재단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활동보고서는 PDF, e-book뿐 아니라 영상 형태로도 제작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사장(왼쪽)과 캐피탈그룹 마이크 기틀린 CEO가 전략적 협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투증권-캐피탈그룹 금융상품 공급 ‘맞손’

하반기 인컴형 상품 출시 추진

한국투자증권이 글로벌 운용사 캐피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하반기 공모 인컴형 상품 출시와 글로벌 자산 공급 체계 강화를 추진하며, 국내 자산관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일 마이크 기틀린(Mike Gitlin) 캐피탈그룹 CEO 방한에 맞춰 국내 금융상품 공급 확대 및 협업 방안에 대한 전략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투자 트렌드, 하반기 상품 출시 방향, 협업 시너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마이크 기틀린 CEO는 이날 협의회서 해외 협업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투자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컴형 상품 출시를 위해 실무 차원의 계획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은 골드만삭스, 칼라일그룹, 만그룹, 얼라이언스스타인 등과 전략적 제휴에 이어 캐피탈그룹까지 협업 파트너로 확보하게 되며, 우량 글로벌 자산을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허정윤 기자

증권사, 해외지점 확대… 성장 모멘텀 높인다

금융상품 발굴 등 업무영역 확장

증권사들이 해외에서 먹거리 찾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해외금융상품 발굴 등 업무영역도 넓히고 현지 증권사 인수와 합작법인 설립 등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도 펼치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해 1분기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지점은 총 70개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61개 대비 9개 지점이 늘어났다.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한 곳은 미래

에셋증권이다. 최근 1년 동안 해외지점을 7곳 늘렸다. 덕분에 해외 전초기지는 22곳으로 늘었다.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인도시장이다. 2017년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인도에 진출했으며, 지난해 현지 증권사를 인수를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현지화 공략을 펼치고 있다. 하나증권은 기존에 전무했던 해외지점을 2곳 늘렸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1분기 2곳에서 올 해 3곳으로 해외 거점을 확대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인도네

시아 현지 증권사인 칩타다나증권을 인수한 데 이어, 올해는 칩타다나자산운용사 인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 해외법인 성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은 뉴욕,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등 6개국에 총 6곳의 현지법인과 2곳의 현지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해

외법인·사무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많이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지 시장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는 아직 드물다”면서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고, 보다 넓은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해외 거점 확대에 나선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 15곳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은 2억 7220만 달러(약 4002억원)였다. 전년 1억 650만 달러 대비 155.5%(1억 650만 달러)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실내 적정온도 26도 지켜주세요” 정부·기업, 절전문화 확산 나서

산업부 ‘에너지절약 캠페인’
MZ세대 겨냥 지비츠 굿즈 배포
고효율 가전 환급사업 등 추진
개그우먼 이수지 광고 모델 발탁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시민단체, 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적정 실내 온도 26℃ 준수 등 절약 행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함께 하자는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인 ‘온도주의’ 동참을 선언했다.

이날 온도주의 슬로건을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는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에너지 절약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 대표 브랜드로 ‘온도주의’가 확산됐다”며 “앞으로 학교·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도주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캠페인의 새로운 기념품으로 ‘온도주의 지비츠(gibitz)’를 배포하며 젊은 세대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였다. 지비츠는 크룩스 신발의 구명에 끼우는 장식용 액세서리로, 개성 표현이 가능해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찾아온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쿨링포그 밑을 지나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올해 에너지절약 공익광고 모델로 선정된 개그우먼 이수지의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 다짐을 담은 영상 광고도 공개됐다.

올해 캠페인에는 LG전자, 롯데GRS 등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동참했다.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앱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 챌린지’, ‘매장 내 ‘캠페인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온도주의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매장을 방문해 온도주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정부는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핵심

추경사업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사업으로, 국회에서 추경이 의결되는 즉시 시행된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최근 10년간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후민감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동서발전 “안전, 최우선 가치” 현장 중심 재해예방 활동 강화

‘신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위험요인 발굴·개선 체계 구축
지속가능 안전경영 본격 추진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일 오후 울산 중구 본사에서 협력기업 및 외부 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 분야 전문가 및 근로자 대표, 협력업체 등 안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고 심의·자문기구로, 안전보건 정책 수립과 점검을 총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전관리 현황과 중대재해 예방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동서발전의 2040 중장기 경영전략의 새로운 가치체계 및 전략방향을 반영한 ‘신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서 안전보

건을 확립하고, 경영진의 리더십과 실행 기반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에 법령 및 기준 준수와 지속적인 개선 의무를 명시하며, 근로자 및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방침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전사적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안전교육 및 역량 강화,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목표와 성과지표로 연결돼 실질적 안전관리 활동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김봉빈 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내가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안전 구호를 생활속에 실천하며,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경부, 여성·신규 축산인 맞춤형 교육

환경오염 예방 ‘햇살교육’ 실시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이 2일 대전 동구에서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햇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햇살교육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신규 공공 환경교육 과정이다. 기존 환경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규 축산인 및 여성을 대상으로 축사 내 환경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법 등을 알려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다.

특히,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표로 ▲축사 환경관리 ▲양분관리를 위한 퇴비화 기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적정 퇴비 관리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설명 중심의 교육자료와 시각 자료를 교육에 활용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축산분야 전문화 과정과 연계돼 실시됐다. 후계 및 여성 낙농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축사

/뉴시스

조희승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축산인의 참여와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햇살교육을 통해 그동안 교육 혜택에서 소외됐던 여성과 후계 농가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우리 쌀·술 품평회 출품작 공모

‘K-라이스페스타’ 7개 부문 접수

농협이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 출품작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출품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1일까지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K-라이스페스타는 우리쌀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고 범국민 쌀 소비확대 붐을 조성하고자 농협이 지난해 도입한 행사다.

쌀 가공식품·우리술 품평회를 통해 우수업체를 발굴 및 시상하고, 참관객을 대상으로 쌀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품평회 부문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세분화됐다. 쌀 가공식품은 조리식품(일반업체), 비조리식품(일반업체), 농협 시판식품 등 3개 부문이다. 우리술은 저도 발효주(9도 미만), 고도 발

효주(9도 이상), 약·청주, 증류주 등 4개 부문으로 나뉜다.

또 다양한 제조사 및 제품 육성을 위해 시상 규모도 전년대비 12점을 확대한 총 28점으로 진행된다.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이 선정된다. 대상작에 2000만 원 등 상금 총 2억6000만 원이 수여된다.

농협은 앞으로도 범국민 쌀 소비촉진과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한 쌀 가공식품과 우리술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도록 K-라이스페스타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K-라이스페스타는 오는 11월 28~30일 사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세부일정 및 홍보대사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농기자재, 태국서 230만달러 수출 성과

농어촌공사, 시장개척단 파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태국에 ‘K-농기자재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2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4~25일 태국에서 열린 현지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15개 사가 참가했다. 농어촌공사는 태국 및 인접국가의 구매기업 52곳을 초청해 일대일 상담을 주선했다.

상담회에서는 총 219건, 216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이를 12건, 230만 달러 규모의 MOU가 체결됐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수요와 해외 현지 시장을 정밀하게 연결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농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태국은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업국가이다. 친환경 자재와 스마트농업 기술 등 농기자재 수요가 증가세다. 또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한국 농기자재의 동남아 시장 진출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농어촌공사는 국내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농산업수출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장개척단 파견을 비롯해 맞춤형 컨설팅, 해외 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국수력원자력

“안정적 전력공급 최선”

여름철 안전운영 결의대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앞두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소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수원은 지난 30일 경주 황룡원에서 황주호 사장을 비롯해 기술부사장, 5개 원자력 발전본부의 모든 발전소장을 포함한 주요간부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 안전운영 결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폭염과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확인하고,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이 지난 6월 30일 하계 전력피크 대비 ‘발전소 안전운영 결의 대회’를 가졌다. /한수원



2025.07.05(토) ~ 08.20(수)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 대극장

주최, 제작 Contents Creative Group
Artcube

마케팅 타이제이컴퍼니



아츠컴퍼니 예매 NOL 티켓

문의 02-766-9001

경북도 “국가발전·지방시대 선도한 지방정부로 도약”

이철우 도지사 도정 브리핑
총예산, 6년간 37.6% 증가
신산업·농업대전환 등 성과
앞으로 ‘7대 전략산업’ 추진

경북도는 1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언론인과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의 성과와 더 큰 발전 방향’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그간 경북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4년은 변화와 혁신으로 경직된 도정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 시간이었다”며 “민선 8기 3년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며, 국가 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한 실력 있는 지방정부로 도약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도지사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변해야 산다’는 각오로 스스로를 재찍질해왔으며, 전문성을



경북도는 1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언론인과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의 성과와 더 큰 발전 방향’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경북도

갖춘 도정을 만들기 위해 화공특강을 300회 이상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경북도는 지난 6년간 총예산이 3조 6263억 원 늘며 37.6%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는 동기간 정부 예산 증가율(31.4%)과 광역자치단체 평균 증가율(32.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통합신공항 유치, 철강과 전자를 넘어서는 신산업 육성 등의 주요 성과를 제시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구미 5

공단은 각각 이차전지·반도체특화단지 지로 재편되며 분양률 90%를 넘겼고, 규제자유특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는 경북 산업의 대전환을 입증하는 성과로 평가됐다.

또한, 소득 2배·생산 3배를 실현한 ‘농업대전환’은 정부 혁신전략으로 반영돼 전국 확산 중이며, 광역비자, K-U시티 등 지방시대 의제를 선도해왔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전쟁 선포’와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는 지방과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결정적 성과로 소개됐다.

이 지사는 향후 도정 방향도 밝혔다. 경북이 제안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사업은 현 정부 7대 광역공약에 반영됐으며, 도는 「경북 새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북의 ‘7대 전략산업’이 프로젝트 추진 의지도 밝혔다.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ABCDEF)에 글로벌 기업(G)을 더한 ‘경북형 ABCDEFG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육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제조업 혁신, 푸드테크, 첨단재생의료 등 미래 산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제 정세 불확실성과 재난의 대형화라는 격동의 시대에 경북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지방정부로서, 대한민국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목포대교 전경. /목포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본격화

목포대교, 야간경관 명소 자리매김
찾은 고장·단조로운 연출 개선 필요
96억 사업비 확보로 추진 기반 마련

목포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노후된 목포대교 경관조명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2년 개통된 목포대교는 그동안 목포를 대표하는 야간경관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나, 조명 시스템의 잦은 고장과 연출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며

총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중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사업비 조정을 거쳐 96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3월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검토했다.

지난 27일 개최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현재 설치된 주탑, 접속고 하부, 난간 등 노후 조명을 최신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프로그램 기반의 연출기법을 적용해 다채로운 야간경관을 구현할 계획을 확정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투자유치 진행상황 방문 점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 등 방문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1일 오후 강서구에 건설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BGF(BGF)리테일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투자 유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최적 투자 환경 조성 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의 소통 기회로 마련됐다.

부산시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전부 개정, 투자 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통해 투자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총 11조 5000억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에서는 강성현 롯데쇼핑 마트·슈퍼 대표와

함께 온라인 식료품 사업 비전을 공유했다.

이 센터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국 ‘오카도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설이다. 연면적 4만 1000㎡ 규모로 약 200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8월 완공 예정으로 2000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는 BGF리테일 물류센터는 연면적 12만 8000㎡로 약 2600억원이 투입된다. 2026년 가동을 목표로 K-편의점 세계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며 8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쿠팡 물류센터는 연면적 19만 8000㎡ 규모로 3000억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 시스템을 갖춘다. 2026년 하반기 준공돼 3000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 전망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5일부터 27개 해수욕장 순차 개장

창원 광암해수욕장 등 16곳 시작

경남지역 27개 해수욕장이 오는 5일부터 차례로 개장에 8월 24일까지 운영된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오는 5일 창원 광암해수욕장과 거제지역 학동몽돌해수욕장 등 16곳을 시작으로, 11일 사천 남일대와 남해 상주은모래비치해수욕장 등 6곳이, 12일엔 통영지역 3개 해수욕장이 개장한다고 밝혔다.

특색 있는 테마 해수욕장도 지난해에 이어 운영한다.

지자체 최초로 조성되어 반려동물

해수욕장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명사해수욕장은 올해도 반려동물 전용 샤워장, 간식 교환소,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패들보드 체험 운영 등 방문객 수요에 맞춘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거제 와현 장애인 해수욕장, 남해 상주와 송정의 레저힐링 테마 복합형 해수욕장, 남해 사촌 향토체험형 해수욕장 등을 운영해 다양한 추억을 선사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인명사고 없는 해수욕장을 위해 안전을 기할 예정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

국가지점번호판 100개소 점검

해남군은 오는 9월까지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100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국가지점번호판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없는 등산로·해안가에서 재난 및 사고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소정보누리집홈페이지 오른쪽 아래 ‘지도로 찾기’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 메뉴에서 주변 국가지점번호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창원시

누비전 200억 규모 발행

창원시는 침체된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2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누비전은 모바일형으로만 판매되며 개인당 할인 구매 한도는 20만 원이고 할인율은 7%로 책정됐다.

구매일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는 누비전 앱을 비롯해 비페제로페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올원뱅크 앱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창원시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누비전과 기프트콘을 결합한 새로운 모바일 상품권 ‘누비콘’을 출시한 바 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청도군

청도 복숭아 수출 선적식

청도군은 지난 30일 삼성산작목반 선과장에서 ‘2025 청도 복숭아(미황·조황)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적식은 경북 복숭아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청도산 복숭아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기 출하 품종인 ‘미황’과 ‘조황’ 복숭아가 주요 품목으로 선과 작업을 마친 뒤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

청도 복숭아는 최근 동남아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청도(경북)=김준한 기자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조성’ 환영

봉화군은 최근 수원특례시의회가 청량산 캠핑장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과 21억 원 규모의 추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공식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봉화군과 수원시가 지난 6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해온 도시와 농촌 간 교류 사업의 실질적인 첫 성과로 평가된다. 양 도시는 청량산 집단시설지구를 캠핑 거점으로 삼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고, 이번 예산 확보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봉화(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안동 종가문화 경험하며 일·휴식 누려요”

‘안동 종가 위케이션’ 운영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동 종가 위케이션’을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서 깊은 종가문화와 지역 고유자산을 기반으로,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안동형 위케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다.

‘안동 종가 위케이션’은 도산면 선

성헌문화단지 내 전통 민가촌과 한옥 체험관을 숙박 공간으로, 옛 관아를 복원한 인리청과 형리청을 업무 공간으로 활용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한옥에서 머무르며 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며, 가양주 체험 등 종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립스틱부터 전기식까지… 편의점, 상품군 다변화 나섰다

GS25 뷰티 브랜드 ‘리틀리 위씨’
바운시글로스 등 3000원 균일가

CU 건강기능식품 10여종 선출시
지난달 명동점 매출 3.5배 증가

세븐일레븐 요아정과 협업
세안제·소용량 화장품 등 선보여

시장 포화로 편의점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는 국내 편의점들이 상품군까지 다변화하면서 국내외로 돌파구 찾기에 나서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성장 한계에 부딪힌 국내 편의점들이 해외 출점에 이어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GS25는 무신사와 손잡고 패션 및 뷰티 상품군 강화에 나선다. 뷰티 상품군의 경우 소용량·저가제품을 선보이면서, 저가형 소비를 즐기는 젊은 세대를 본격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GS25에서 브랜드 관계자가 리틀리 위씨 상품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GS25

GS25가 이번에 첫 선보이는 뷰티 브랜드는 리틀리 위씨다. 리틀리 위씨의 ‘바운시 글로스 5종’, ‘아이새도우 듀오 2종’ 등 립·아이 새도우 제품을 3000원 균일가에 제공한다. 이 외에도 무신사가 GS25 전용으로 출시한 캐주얼 웨어 ‘무신사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여름 신상품도 선보인다.

CU 역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강화하면서 상품 다각화에 착수했다. CU는 이달 중순까지 상품 인허가 취득 및 등록을 완료하고, 6000여 점포를 시작으로 10여 종의 건기식 상품을 선출시 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건기식 특화점을 늘려 CU 단독 판매 제품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CU는 40여 종의 상품을 한 데 모은 건기식 특화존을 5000여 점에 설치하고, 건기식 판매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그중 명동점의 경우 지난달 건기식 매출이 작년 운영 초기 대비 3.5배 증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세븐일레븐도 지난달 요거트아이스 크림 프랜차이즈 기업 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식)과 협업해 ‘힙 팩 클렌저(세안제)’ 상품을 출시했다. 같은 달 4일에는 모공 케어를 중심으로 한 식물성 클렌징 제품 ‘키키블룸 그린 캄 클렌징밤’을 선보이며 소용량 기초 화장품 상품 구성 확대에 나섰다.

국내 주요 편의점들이 상품 다각화에 나서는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함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은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마이너스(-) 0.2 역성장했다. 오프라인 점포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했다.

성장이 한계점에 다다르면, 기업들이 쉽게 눈을 돌리는 곳은 해외 시장이

다. 실제 이마트24는 지난 6월 업계 최초로 인도 시장에, CU는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미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GS리테일 역시 지난 3월 베트남 하노이에 6개 매장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베트남 북부 진출을 선언했다. 오는 2027년까지 베트남 전역으로 700개까지 점포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외 진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품 다각화 등 내수 시장 점유를 위한 체질 개선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의 리스크가 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해외 진출만을 고려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편의점 업계가 역성장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상품 다각화, 통신사와의 제휴 확대 등 전략을 펼치면서 국내 시장 내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롯데웰푸드, 연매출 1조 목표 ‘인도 공략’

(2032년)

롯데 인디아, 하브모어 흡수합병
인구 1위 ‘원 인디아’ 전략 본격화

롯데웰푸드는 인도 자회사 ‘롯데 인디아(LOTTE India)’와 ‘하브모어(Havmor Ice Cream)’의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통합법인 출범은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 시장에서 롯데 ‘ONE INDIA’ 전략을 본격화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양사 이사회 의결을 거친 이번 합병은 롯데 인디아가 하브모어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흡수합병된 하브모어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롯데웰푸드는 이번 합병을 기점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두 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롯데 인디아는 2032년까지 ‘연매출 1조원’을 목표로 한다.

우선 지역 커버리지 확대에 인한 외형적 확장이 기대된다. 기존 롯데 인디아는 남부 첸나이와 북부 하리아나를, 하브모어는 서부 구자라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통합으로 북부, 남부, 서부를 아우르는 지역 커버리지를 보유하게 된다. 물류 및 생산 거점 통합으로 운영 효율화도 기대된다.

생산력 확대 및 롯데 브랜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 700억원을 투자한 푸네 빙과 신공장이 지난 2월 본격 가동에 돌입하며 인도 빙과 성수기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푸네 신공장을 통해 인도 시장에 선보인 ‘돼지바(현지명 Krunch)’는 출시 3개월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달성하는 등 K-아이스크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약 330억원이 투입된 하리아나 공장의 ‘빠빠로’ 첫 해외 생산 기지 구축도 올해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롯데 인디아는 푸네 신공장 가동 및 빠빠로 신규 도입을 통해 올해 1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인도 지역 매출은 8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성장했다. 지난해 총매출은 2905억원이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통합법인 출범을 계기로 인도 시장 연매출 1조원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할 것”이라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인도 최고의 종합 제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달 2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CJ제일제당 ‘K-쿠킹 클래스 워드 쿼진케이’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CJ제일제당

퀴진케이, 유럽서 ‘잡채·만두’ 쿠킹클래스

CJ제일제당, 독일·스페인 등서
국가별 2회씩 쿠킹클래스 진행

CJ제일제당의 K-푸드 영셰프 육성 플랫폼 ‘퀴진케이(Cuisine. K)’가 글로벌로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힌다.

CJ제일제당은 퀴진케이 영셰프들이 유럽 3개국에서 진행한 한식 쿠킹 클래스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K-쿠킹 클래스 워드 쿼진케이(K-Cooking Class with Cuisine. K)’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외한국문화원을 거점 삼아 다양한 K-컬처를 알리는 세계순회 지원사업 ‘2025 투어링 K-아츠(Touring K-Arts)’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후원으로 주영국한국문화원, 주독일한국문화원, 주스페인한국문화원과 함께 진행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퀴진케이 알람나이 2기인 이경운, 최수빈 셰프와 ‘줄리엣’ 케이터링을 운영 중인 이연주 셰프 등 쿠킹 클래스 경험과 미쉐린 가이드 레스토랑 경력을 가진 영셰프들로 팀 쿼진케이를 꾸렸다.

이들은 쿠킹 클래스 주제로 한국 대표 전통 메뉴인 ‘잡채’와 ‘만두’를 선정하고, 지난달 19일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약 2주간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등 유럽 3개국을 돌며 국가별로 2회씩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잡채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배운 후 잡채와 잡채밥, 만두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만들며 한국 식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한 조리법으로 참가자들이 집에서 직접 한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 현지 마트에서 손쉽게 비비고 제품을 구매해 K-푸드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소개했다.

쿠킹 클래스 참가자는 “평소에 즐겨 먹던 K-푸드의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며, “한식 조리법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직접 만들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단한데다 맛도 좋아서 집에서 다시 만들어 먹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5월 홍콩에 첫 해외 팝업 레스토랑을 오픈한 데 이어 이번 쿠킹 클래스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K-푸드 영셰프 발굴 및 육성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요리대회 등 보다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상명 CJ제일제당 Hansik245팀 프로젝트 담당자는 “앞으로도 국내를 넘어 해외를 무대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한식 세계화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외식할 때도 ‘논알코올 맥주’ 마셔요”

주류면허 시행령 개정에 ‘식당 유통’
오비맥주, 카스 0.0 등 제품군 다변화

음식점에서 논알코올 맥주를 즐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2023년 5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주류 도매업자가 논알코올 음료를 식당에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마트나 온라인 전용이던 제품들이 식당에서도 제공되기 시작한 영향이다.

무알코올 또는 논알코올로 불리는 이들 제품은 ‘헬시 플레저’ 트렌드와 맞물려 인기를 끌고 있다. 논알코올 맥주는 일반 맥주처럼 양조한 뒤 알코올만 제거해 0.05% 미만의 극미량 알코올을 포함하며, 대표적으로 카스 0.0, ‘하이네켄 0.0’, ‘기네스 0.0’ 등이 있다. 반면 하이트 제로, 클라우드 제로 등은 알코올이 아예 없



카스 논알코올 음료 라인업 ‘카스 레몬 스퀴즈 0.0’와 ‘카스 0.0’

는 맥주 맛 탄산음료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국내 1위 맥주 제조사 오비맥주는 논알코올 시장 확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2년 ‘카스 0.0’를 출시한 데 이어, 2023년에는 레몬향이 가미된 ‘카스 레몬 스퀴즈 0.0’ 병 제품을 선보이며 제품군을 다변화했다.

/신원선 기자

신라면세점-파라다이스시티 외국인 유치 업무협약

신라면세점이 지난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서 파라다이스시티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관광객 공동 유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각 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특히, 신라면세점은 파라다이스 카지노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신라면세점 멤버십 업그레이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등을 선보인다.

신라면세점과 파라다이스시티는 내달 14일까지 공동 프로모션 ‘택티드로우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라면세점(서울·제주·인천공항점)에서 100달러 이상 구매한 외국인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파라다이스시티 숙박권과 씨메르·윈더박스바우처 등 경품을 증정한다.

/안재선 기자

K-뷰티, 현지화로 유럽시장 공략… 편집숍·물류 ‘총공세’

코스맥스 유로핀즈와 맞손
유럽 화장품 임상 대응 박차
실리콘투 파리에 편집숍 오픈
폴란드 물류센터로 공급망 확대
에이피알 사마리텐 백화점 입점

국내 뷰티 관련 기업들이 유럽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K뷰티의 유럽 시장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임상 시험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거나 지역 거점 및 판매처를 확장하는 등 곳곳에서 인프라 강화에 나서고 있다.

2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K뷰티 제품력과 규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코스맥스는 프랑스 임상기관 유로핀즈와 화장품 임상 시험 분야에 대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핀즈는 임상 전문기업으로, 전 세계 60개 국에서 950개 이상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화장품 개발을 위한 임상, 분석, 체외 및 미생물 검사를 제공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수출국이 다양하게 확보되면서 각 국가별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 평가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화장품 수출시 제품 허가 요건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 지속가능성, 윤리적 생산 등 다양한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아울러 코스맥스는 유



‘모이다’ 프랑스 첫 직영점 전경.

/실리콘투

로핀즈와 협력해 글로벌 자외선 차단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앞서 코스맥스는 지난달 18~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카루젤 뒤 루브르에서 열린 ‘메이크업 인 파리 2025’에서도 자사 경쟁력을 알렸다. 친환경성을 높인 ‘에코 포맬트 펜슬’이 ‘풀 서비스’ 부문상을 수상한 것이다.

코스맥스 측은 “코스맥스의 화장품 제조 기술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글로벌 임상기관 등에서 입증해 고객사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유통 기업 실리콘투는 K뷰티 편집숍 ‘모이다(MOIDA)’를 통해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특히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대중성과 최신 유행 모드를 반영하는 장소

에서 모이다 매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문을 연 이번 매장은 프랑스 첫 직영점이다. 루브르 박물관, 사마리텐 백화점 등과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1호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3호점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실리콘투는 모이다 매장에서 K뷰티 대표 브랜드들을 소개해 왔고,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K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실리콘투는 유럽에서 K뷰티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성장동력으로 물류센터도 구축했다. 폴란드 소재의 4000평 규모 물류센터를 유럽 공급망 기지로 삼고 있다.

신흥 강자로 K뷰티 브랜드사 에이피알도 올해 유럽 지역에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올해 4~5월 합산 유럽 수주 물량이 올해 1~3월(1분기) 대비 110% 이상 증가했다. 에이피알은 실리콘투를 비롯한 국내 화장품 유통기업, 유럽 현지 유통사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유통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판매처를 확장할 뿐 아니라 현지 오프라인 매장 입점 전략에도 속도를 낸다. 무엇보다 현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판로 개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파리 대표 백화점인 사마리텐 백화점 내 ‘K뷰티 하우스’ 코너에 에이피알의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가 입점했다. 영국에서는 글로벌 드럭스토어 브랜드 부츠에서 소비자 접점을 늘렸다.

에이피알은 현재 유럽 화장품 시장을 또다른 기회의 장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최신 소비 유형에 유럽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발 K뷰티 인기가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에이피알 측은 “현재 유럽 분위기는 매우 좋은 편”이라며 “영국, 프랑스 등이 주요 시장인 가운데, 기존 진출 지역 외에 독일, 덴마크,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브랜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

애경산업

다이소 브랜드 ‘블레이’ 퍼퓸 바디케어 6종 선보

애경산업이 3일부터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퍼퓸 바디케어 브랜드 ‘블레이’를 공개한다. 블레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 중 하나인 ‘나미브 사막’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다. 브랜드명도 나미브 사막의 대표적인 절경인 ‘데드블레이’에서 가져왔다. 브랜드 로고에는 나침반 디자인이 적용됐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속에서 신비로운 향으로 방향을 찾아 나간다는 브랜드 미션을 표현했다.

블레이는 나미브 사막의 풍경을 향기로 재해석했다.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시그니처 플로럴 향’, 사막의 고요함을 연상시키는 ‘아쿠아 머스크 향’, 포근하고 매혹적인 ‘윈디 샌달우드 향’ 등을 대표 향으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간편하게 바르는 향수 ‘솔리드 퍼퓸’ 3종, ‘프래그런스 바디 미스트’ 3종 등 총 6종의 신제품도 출시한다.

/이청하 기자



다이소 전용 브랜드 ‘블레이’ /애경산업

정관장, ‘홍삼 기술력’ 키운다… 기술경영 박차

특허 기반 R&D 전략 강화
올해 23건 등록, 2.3배 증가
DNA로 원료 판별 기술 확보

KGC인삼공사가 지식재산권(IP) 중심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홍삼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고도화된 소비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TRM(Technology RoadMap) 경영 체계”를 도입해 특허 중심의 R&D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KGC인삼공사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배 증가했으며, 올해 1~5월 등록된 특허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3배 증가한 23건에 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특허는 ▲홍삼오일의 치주질환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홍삼오일의 경피흡수율을 개선한 조성물 및 제조법 등이다. 전자는 홍삼오일이 치조골 재생 및 항염증 효과를 유도해 치주질환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후자는 홍삼오일을 나노캡슐에 담고 매스티켓을 활용

해 피부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로, 동일 함량 대비 더 높은 생리활성 효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술은 2003년 홍삼오일이 남성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개별인정형 원료로 공식 인정된 이후 효능을 세분화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후속 연구의 일환이다.

KGC인삼공사는 기능성 외에도 원료 신뢰도 향상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등록된 4건의 특허는 한방 원료의 품종을 DNA 기반으로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 기술로, ‘마록 유래 녹용,

작약, 지황, 황정’ 등을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품질 높은 원료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KGC인삼공사가 보유한 등록 특허는 총 431건으로, 이 중 인삼·홍삼 관련 특허는 약 250건, 비인삼 소재 관련은 약 181건이다. 특히 2013년까지는 면역력·심혈관·기억력 등 전통적인 효능 중심의 특허가 주를 이뤘다면, 2014년 이후부터는 장 건강, 눈 건강, 호르몬 조절 등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기능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엑스브릭’으로 바이오 항암제 시장 진출

보령·삼성바이오에피스 파트너십

보령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골질한 치료제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엑스브릭’의 국내 판매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개발사로서 엑스브릭의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고, 보령이 국내 독점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맡게 된다.

엑스지바는 암전이 개발한 ‘골전이 암환자 등의 골격계 증상(SRE) 예방 및 골거대세포종 치료제’로 2024년 기준 글로벌 매출은 약 3.3조원에 달한다.

이번 계약을 통해 보령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항암제 온베브지(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삼페넛(허셉틴 바이오시밀러)에 이어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인 엑스브릭까지 국내 파트너십 제품군을 확대하며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실제 파트너십 품목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온베브지의 지난해 매출은 452억원에 달한다.

보령은 ‘국내 제약사 중 항암제 시장 점유율 1위’로, 항암보조제부터 바이오시밀러에 이르는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동아제약 “키성장 솔루션 체험하세요”

‘키성장 솔루션 파우더’ 샘플링 이벤트

동아제약은 어린이 전문 브랜드 미니막스에서 신제품 ‘키성장 솔루션 파우더’를 출시하며 서울우유와 샘플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샘플링 이벤트는 평소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서울우유 공식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A2+우유’ 구매 시 미니막스 랩 키 성장 솔루션 체험 키트 2포(초코맛 1포, 딸기맛 1포)를 증

정한다.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미니막스 키성장 솔루션 파우더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키 성장 기능성을 인정받은 신규 원료 ‘유산균발효글루추출물’을 함유한다. 또 성장기 어린이 뼈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 비타민 D, 비타민 K, 망간 등도 더해졌다.

하루 한 포씩 우유에 타 먹는 분말 제형이며 깊은 진한 초코우유와 딸기우유 맛까지 갖췄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라네즈

감자 캐릭터 활용 협업 여름 한정판 3종 공개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뷰티 브랜드 라네즈가 인기 캐릭터 ‘감자’와 협업해 여름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라네즈 핵심 품목인 젤크림스킨, 워터뱅크 젤크림, 워터뱅크 선크림 등 3종이며, 감자가 라네즈 제품을 사용하면서 무더위에도 여름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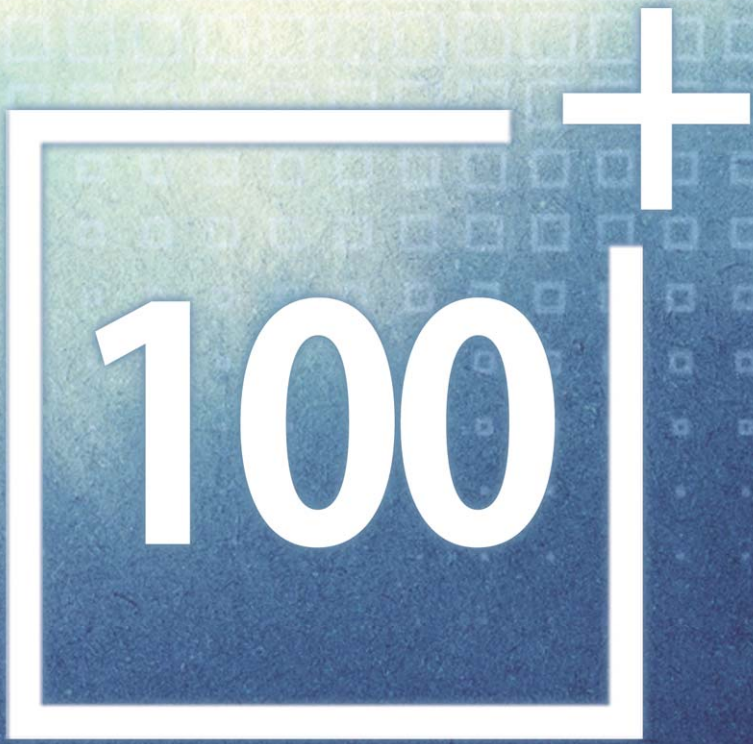
실제로 젤크림스킨은 젤크림 성분을 미세하게 쪼개 토너에 안정화한 제품이다. 바르는 즉시 피부 온도를 4.9℃ 낮춰주는 냉각 효과를 갖췄다. 워터뱅크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제로, 백탁 없이 사용 가능하면서도 수분 크림처럼 촉촉한 것이 특징이다.

‘라네즈X감자’ 여름 한정판은 무신사 온라인 스토어에서 우선 출시됐고, 오는 7일부터 네이버스토어, 올리브영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라네즈X감자’ 여름 한정판 /아모레퍼시픽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7월 22일(화) 오후2시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김학균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장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박희운
-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
- KB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정재훈
-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민승
- 코빗 리서치센터 설립 멤버 및 리서치센터장
- 다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전략기획 업무 수행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강연	14:50~15:30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
	15:30~16:1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16:1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보중앙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릴레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원영준 신용보증회장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신보중앙회



에코프로, 임직원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에코프로는 지난 1일 충북 오창 본사에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가족사 임직원이 총 1560건의 아이디어를 냈고 대상 1건, 금상 3건이 선정됐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왼쪽)는 이날 “가동률이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수익 구조와 제품 다양화, 원가 및 기술 경쟁력을 갖춘 포트폴리오, 공정 혁신, 선제적 고객 다변화 전략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코프로



BGF리테일-오콘, 아동 안전 콘텐츠 개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이날 오콘(OCON)과 ‘아이CU 얼라이언스’ 협약을 맺고, 아동 안전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오콘은 인기 캐릭터 ‘뽀로로’를 보유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다. 류철한 BGF리테일 경영지원부문장(왼쪽)과 우지희 오콘 대표(오른쪽)가 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BGF리테일



롯데쇼핑-하나은행, 임직원 출산·육아 지원

롯데쇼핑이 지난 1일 하나은행과 ‘임직원 대상 출산 및 육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출산을 앞둔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롯데쇼핑 임직원은 하나은행 적금에 가입 시,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롯데쇼핑



한림의료원, ‘WE路 캠페인 사랑의 헌혈행사’ 실시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6월 26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강원도 내 원활한 혈액 수급 및 확보를 위한 ‘We路(위로)캠페인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교직원 및 환자 등 47명이 참가해 총 1만6480cc의 혈액이 모였다. /한림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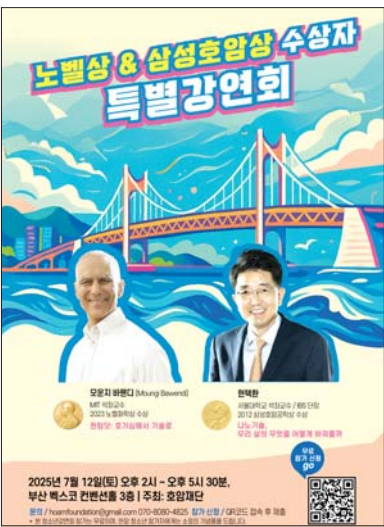
호암재단, 퀀텀닷·나노기술 강연으로 청소년 꿈 키운다

노벨상&삼성호암상 수상자
바웬디 교수·현택환 석좌교수 강연
청소년·일반인 무료 관람 가능

세계 최고 석학들이 한국의 청소년을 찾아 미래 과학의 꿈을 나눈다. 삼성호암상을 운영하는 호암재단은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벅스코 컨벤션홀 3층에서 ‘노벨상&삼성호암상 수상자 특별강연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2023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모운지 바웬디 미국 MIT 석좌교수와 2012년 삼성호암상 과학상 수상자인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가 참여한다.

바웬디 교수는 ‘퀀텀닷: 호기심에



호암재단은 ‘노벨상 & 삼성호암상 수상자 특별강연회’를 오는 7월 12일 부산 벅스코에서 연다. 위 이미지는 호암재단 ‘노벨상 & 삼성호암상 수상자 특별 강연회’ 포스터. /호암재단

서 기술로’를 주제로, 퀀텀닷의 과학적 원리와 이를 응용한 기술 발전 과정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호암재단 관계자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바웬디 교수의 첫 강연”이라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택환 석좌교수는 ‘나노기술, 우리 삶의 무엇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나노기술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강연은 청소년뿐 아니라 대학생,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호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강연

영상은 이후 호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호암재단은 매년 국내외 최고 석학을 초청해 청소년들에게 과학지식을 전하고, 진로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는 강연회를 열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형식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들과 만날 계획이다.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은 “이번 강연회는 부산·경남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에서 최초로 열려 더욱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의 과학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을 접하며 자신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앞으로 모든 변화는 시장·환자 중심” 캠프, 환경보전·정책발전 공로 인정받아

JW홀딩스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질병치료 넘어 환자 마음 회복까지

JW홀딩스는 지난 1일 JW중외제약, JW신약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Together for 80, 우리의 약속’을 개최하고, 새로운 약속(JW’s Promise)인 ‘모두가 건강에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를 선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포된 JW’s Promise는 창업정신인 ‘생명존중’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실제 업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의 마음과 일상 회복까지 함께하겠다는 JW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

이경하 JW홀딩스 회장은 “앞으로의 모든 변화는 시장과 환자 중심이어야 하며, JW는 환자에게 ‘안

심’으로 기억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존중의 실현에는 도전정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실천해 나갈 때 JW는 환자에게 진정한 의미를 지닌 기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약속을 계기로 JW는 고객의 삶 전반에 기여하는 기업으로도 약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생산, 영업 등 모든 부문에서 환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안심’이라는 가치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JW홀딩스 관계자는 “‘모두가 건강에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JW가 앞으로도 지켜가야 할 본질적인 방향”이라며 “이 약속을 바탕으로 80년의 역사 위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환경보전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수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제30회 환경의 날을 맞아 진행됐다. 캠코는 공공자산 거래 플랫폼 ‘온비드’를 통해 1조3000억원 규모의 공공부문 유류 자산 및 폐기물, 재활용품 등에 대한 매각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캠코는 지난해 9월 캠코 온비드와 폐전자제품 재활용 플랫폼 ‘E순환거버넌스’를 연계한 ‘온비드 온스톱 자원순환 체계’도 구축해 온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가운데)와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비드 내에서 유찰된 폐전자제품의 재활용도 지원 중이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 이사는 “이번 수상은 캠코만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전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수행의 파트너로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포스코홀딩스, 생물다양성 공시 강화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개
올해 TNFD 보고서 페이지 신설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그룹의 성장전략과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생물다양성 공시를 강화했다.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포스코그룹 주요 사업회사는 ESG 경영 성과와 미래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보고서에서 철강, 이차전지소재, 인프라·신사업 등 ‘(2코어 + 뉴엔진) 2Core + New Engine’ 성장 전략을 ESG 관점에서 조명하고 국내외 15개 주요 사업회사의 정량 데이터와 정성적 ESG 성과를 함께 소개하면서 그룹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맞춰 생물다양성 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 해 TC 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보고서에 이어 올해는 TN FD(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

체) 보고서 페이지를 신설했다.

포스코홀딩스는 TNFD가 제시한 LEAP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연결대상 193개 법인, 207개 사업장의 자연자본 영향과 의존도를 국립생태원과 공동 분석했다. LEAP 프레임워크는 사업과 자연의 접점 지역을 설정하고, 의존도와 영향을 평가한 뒤,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접근법이다.

포스코그룹은 2004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2022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그룹 연결 기준의 통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포스코, 포스코인태셔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애크 등 6개 주요 사업회사도 각 사의 ESG 경영성과와 지속가능경영 방향성을 담은 개별 보고서를 발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7월 4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지난 1일 경기 용인의 GC녹십자 본사에서 열린 ‘43주년 GC녹십자의료재단 창립기념식’에서 허일섭 GC녹십자홀딩스 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왼쪽에서 열한 번째) 등 임직원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GC녹십자의료재단

GC녹십자의료재단 ‘43주년 창립 기념식’

공로상 등 각종 표창 시상식 진행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1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C녹십자본사에서 ‘43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1982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검체검

사 전문 수탁기관이다. 독자적인 노하우와 검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진단검사의학적 검사와 병리학적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수여하는 공로상 등을 포함한 각종 표창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창하 기자 mlee236@

인사

◆ABL생명 ◇임원 선임 ▲부사장 영업채널총괄임원 이성원 ▲전무 CFO 지성원 ▲상무 경영혁신실장 CSO 최근영 ◇승진 ▲서부지역단장 이준병 ▲커뮤니케이션부장 하철웅 ▲특별계정운용부장 신설아

부음

▲윤미야씨 별세, 이대중씨 부인상, 이연우·이연수씨 모친상, 윤원일(LG전자 대외협력팀장)씨 누님상 = 2일 오전 4시58분,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일 오전 10시, 장지 원주시 문막읍 선영. 02-2019-4000

종이신문 예찬



신상용의

벤치나라

오늘도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에 변수 없이 정시 도착하는 교통 수단으로는 지하철이 최고다. 그래서 지하철을 애용한다.

자가용 차량을 직접 몰고 다니는 것보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 어딜 가더라도 주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녁 모임이 갑자기 잡혀도 부담이 없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 구경의 재미는 덤이다. 필자처럼 하루에도 여러 거래처를 방문하는 사업가에게는 한마디로 ‘가성비 갑인 모빌리티’다.

이처럼 무수히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지하철이 가장 쓸쓸한 이유는 따로 있다. 시간이 곧 돈인 현대인들에게 이동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승용차를 운전할 때와 달리 두 손과 눈이 자유로워 책이나 신문을 읽으며 필자가 업으로 삼는 렌털전환(RX)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다.

하루하루가 쌓여 일년을 채우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사업할 때 아이디어 원천이 되어 요긴하게 쓰인다.

필자는 지하철로 이동하는 30~40분 동안 신문을 읽는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종이신문으로 ‘뉴스를 읽는’다. 요즘에는 생소한 풍경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종이신문을 구독한다. 매일 새벽마다 집 앞으로 배달이 온다. 출근할 때 종이신문을 꼭 챙긴다. 이동 시간 틈틈이 읽기 위함이다.

물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 여러 문제가 생기는 요즘 시대에 종이신문으로 보도되는 기사는 정제된 고급 정보다. 고등교육을 받은 고도로 훈련된 기자들이 쓴 기사를 언론사 내부에서 한 번 더 검증을 거쳐 가치가 높아진 기사들만 종이신문에 실린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1급수 정보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종이신문을 구독하고 읽는 이유다.

요즘에는 종이신문을 볼 때마다 ‘어쩌면 최고의 현대 사회 종합인문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종이신문 한 부에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등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생생한 사진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일 매일.

놀라운 사실은 이 최고의 종합인문서 한 부가 단 돈 1000원선이라는 점이다. 소위 말해 편의점에서 파는 껌 값보다 싸다. 더욱 놀라운 점도 있다.

매일 배달오는 종이신문에서 지식을 다 습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 읽은 종이신문을 신발장이나 옷장에 넣으면 냄새와 습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튀김 요리를 할 때도 주변에 깔아두면 안전하고 깔끔하다. 유리창을 청소할 때도 유용하다.

신문(新聞)은 한자로 ‘새로운 것을 깨우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新門)’이라는 의미도 더하고 싶다. 지금 종이신문을 한 부 구입해서 펼쳐보자. 나를 성장시키는 배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아 차차! 오늘 아침에 깜빡하고 종이신문을 못 챙기고 나왔다. 다행히 지하철 역 앞에 반가운 무가지 신문이 있다. 무료라서 더욱 반갑다. 오늘의 문은 이걸로 열어 아겠다.

//주)프리프스 대표

진짜 맛은 얼마인가?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한국 식품산업이 ‘가성비’의 그물에 걸려 휘청이고 있다. 좋은 원료를 쓰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을 낮추면 품질이 떨어지는 구조 속에서 산업은 생기를 잃고 있다.

소비자는 가격표부터 보고 유통업체는 공급가를 짚는다. 결국 중소 제조사는 수입산 원료에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제품으로 ‘최저가 경쟁’에 내몰린다. 대기업조차 프리미엄 제품을 한정판처럼 눈치 보며 내놓을 뿐이다. 싸고 무난한 제품은 넘쳐나지만, 비싸도 좋은 식품은 설 자리를

잃는다.

일부 식품 회사들은 가성비라는 명목을 앞세워 국산 원료보다 수입산을, 깊은 품미보다 익숙한 자극적인 맛을 택하면서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유통을 단순화해 간편식을 내놓는다. 마트 진열대가 순식간에 비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부담은 적었지만, 산업 전반이 ‘싼맛’에만 몰두할 때 잃어가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간편식의 고급화 전략을 택했다. 항생제 없이 키운 동물복지 닭, 국산 곡물 사료,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 등 품질을 앞세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타사 제품 대비 가격은 비싸지만, 신뢰를 파는 방식이다. 이런 시도는 느리지만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중요한 걸음이다.

미국·유럽·일본의 식품산업은 ‘저렴함’보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지속 가능한 생산’을 경쟁력으로 삼는다. 한국도 ‘저렴한 맛’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품질’과 ‘글로벌 시장 속 국내 식품 산업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수입산 원료 의존을 줄이고 국산 유통망과 R&D에 투자해야 한다. 유통업계는 적정 마진을 보장해 상생 구조를 만들고, 소비자도 가격보다 가치를 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식품은 하루 세 번, 생존이 아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다. 한국 식품산업이 진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냐’보다 ‘어떻게만 들었냐’, 즉 가치를 먼저 따져물어야 할 것이다.

/tree683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3일 (음 6월 9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작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노려라. 48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피해라. 60년생 뜯터있던 거품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는다. 72년생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긴다. 84년생 당장은 성과가 없어도 시작하면 좋다.	
 소	37년생 결과를 재촉하지 말고 과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 49년생 알아도 모르는 척 지나가기. 61년생 멀리서 구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73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니 행운이 가까이. 85년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루.	
 토끼	38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50년생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간다. 62년생 상대를 배려하면 내가 존중 받는다. 74년생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인식. 86년생 시간이 돈이니 시간활용을 잘 하라.	
 토끼	39년생 천하를 다 얻은 듯 즐거운 하루. 51년생 심한 운동으로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다. 63년생 표정관리를 잘해야 적을 만들지 않는다. 75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오니 일을 시작하라. 87년생 기대만큼 큰 성과가 있다.	
 양	40년생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니 배우자에게 더 신경 쓰라. 52년생 십 년 묵은 체증이 해소. 64년생 받기보다 베푸는 하루가 된다. 76년생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게 마련인데. 88년생 노력이 발휘되고 목표가 달성되는 날.	
 원숭이	41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53년생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내라. 65년생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내일을 위해 저축을. 77년생 신에게 무조건 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 아니다. 89년생 주변의 박씨가 도움을 준다.	
 말	42년생 비가와도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우산은 필요 없다. 54년생 마음만 바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66년생 선배에게 도움을 구하면 해결책이 보임. 78년생 주변이 바쁘니 외출 자제. 90년생 재혼자에게 먼저 칭찬하고 이해하라.	
 양	43년생 오후 7시 지나면서 차 사고에 주의해야. 55년생 인수 운이 있으니 매매가 순조롭다. 67년생 원하던 영업문서가 실적으로 계약된다. 79년생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질 수. 91년생 상대가 못마땅해도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원숭이	44년생 새로운 만남은 많은 것을 가져온다. 56년생 하늘도 맑고 푸르니 여행을 떠나 보라. 68년생 아차피 할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80년생 논쟁보다는 타협이 해결책이니 언쟁하지 마라. 92년생 지나친 자존감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닭	45년생 자신의 능력으로 못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 57년생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망신 수가 있다. 69년생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만나는 것이 좋다. 81년생 음주나 유행을 금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93년생 결모양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마라.	
 돼지	46년생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라. 58년생 신규 투자할 곳이 나타난다. 70년생 남에게 이해를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82년생 산다는 것이 축복일까 건강하다면 최고의 축복으로. 94년생 진취적인 행동이 자녀들의 본보기가 된다.	
 돼지	47년생 남의 이목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인다. 59년생 일을 하던 중에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바로 중지. 71년생 벗어나니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긴다. 83년생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피라. 95년생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이직은 손실.	



김상회의四季

을사년 백중 입제

우리나라 대승불교 스님들의 안거 입제는 음력 4월보름으로 고정이며 해제일은 음력 7월 보름인 백중일에 맞추므로 입제일 기준 보통 90일 남짓이다. 이러면 올해 하안거 해제일과 실제 음력 7월보름과는 거의 한 달 차이가 난다. 올해는 음력 6월에 윤달이 들므로 각 사찰마다 백중일은 안거 해제일에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통사찰이나 암자에서는 윤달 6월이 시작되는 음력 6월 초하루에 입제를 시작으로 백중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백중은 음력 7월 보름에 맞춰 백중재를 회향해야 하니 필자가 주석하는 월광사도 그렇게 일정을 잡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윤6월 1일에 입제를 하여 초재를 윤6월 2일부터 하게 되면 음력 7월 15일이 되는 양력 9월 6일에 회향을 하게 된다. 윤년이나 윤달은 조상묘의 이장과 같은 음택풍수를 행하는 것은 무탈하거나 길하다 하여 분주한 시기이기도 한데, 백중 7재를 윤6월에 입재하여 진행하게 되니 조상 천도에는 이만한 시절 인연을 만나기 쉽지 않다. 점점 제사도 챙기지 않는 마당에 백중재까지 지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불교는 윤회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게다가 육체는 사대로 흩어져 사라지지만 식의 기능은 업력으로 윤회한다. 이것이 혼(魂)이며 영(靈)으로 영혼이라 부르는 그것은 업력에 의해 인연 환생을 한다. 업식의 연결 인연으로 후손들은 기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니 조상 묘자리를 중시여기는 연유이다. 선망 친족 연족은 물론 연관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영가가 지옥고를 비롯한 4악처를 면하고 산 사람은 물질인 몸을 갖고 있어 마음이 둔탁하지만, 영가는 몸이 없어 부처님의 주옥과 같은 가르침 한 마디에 영이 깨어난다. 재를 올리는 이유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주사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주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8	2	7	4	6	1	9	9
7	1	9	8	2	9	4	8	6
6	4	9	9	1	8	8	7	2
8	9	4	6	9	2	7	1	8
2	7	6	4	8	1	9	9	8
9	8	1	9	8	7	6	2	4
9	7	2	6	4	8	8	1	4
4	2	8	1	7	8	9	6	9
1	6	8	8	9	9	2	4	7

9	2	9	6	8	4	7	1	8
4	6	1	7	2	8	9	8	9
8	8	7	1	9	9	6	2	4
6	9	8	8	4	7	2	9	1
2	1	9	9	6	8	4	1	7
7	9	4	9	1	2	8	6	8
9	4	9	2	7	1	8	8	6
1	7	2	8	8	6	9	4	9
8	8	6	4	9	9	1	7	2



편의점
립스틱, 건기식 등
상품군 다변화
L1



Life

K-뷰티
유럽 현지화 가속
유통망 확장
L2



병원에서 시작해 글로벌까지 보습·보호로 피부 방어력 ‘풀충전’

지난 2002년, 네오팜은 무너진 피부 장벽을 위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며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제로이드(ZEROID)’를 세상에 내놓았다. 다양한 외부 유해 환경 속에서 반복되는 자극으로 약해진 피부에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스킨케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제로(ZERO)’와 ‘스테로이드(STEROID)’를 합친 브랜드 이름처럼, 스테로이드 성분에 의존하지 않고 피부 본연의 장벽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 스테로이드제는 피부 질환 치료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일상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 위축, 모세혈관 확장 등 부작용 우려가 적지 않다. 제로이드는 기존 스테로이드 제품의 대안을 찾던 의료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했고, 20여 년 간 전국 병·의원 전용 화장품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네오팜 ‘제로이드’

스테로이드 성분 없이 피부장벽 회복
병·의원 전용 화장품으로 신뢰도 높아

자체 기술력으로 유효성분 흡수 개선
독자성분 ‘디펜사마이드’로 피부 강화
피부별 고민 위한 7가지 제품군 선보

지난 2002년, 네오팜의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제로이드는 병·의원 전용 화장품으로 안전성은 물론 브랜드 전문성까지 갖춰 소비자로부터 신뢰도를 얻었다. 실제로 제로이드는 자체 기술력으로 ‘멀티 라멜라 에멀전(MLE)’ 피부 장벽을 구축했다. 건강한 피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라멜라 구조를 유사하게 재현한 것으로 화장품 유효성분의 체내 흡수를 개선해 준다. 3차원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통해 피부가 가진 원초적인 장벽 기능과 피부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디펜사마이드’도 제로이드 독자 성분으로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인다. 디펜사마이드는 체내 항균펩타이드의 생성을 촉진시켜 약해진 피부 방어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
되어 건조하

고 가려운 피부는 천연 항균 물질인 항균 펩타이드(AMPs)가 감소된 상태다. 항균 펩타이드는 피부에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등의 감염을 억제하는 선천 면역 기능에 관여하고 피부 항상성 유지에 중요하다.

디펜사마이드의 효과는 2011년 10월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원료박람회인 ‘인코스메틱스’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노베이션 존 베스트 인그리디언트 어워드’ 부문에서 은상을 차지해 혁신소재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독자 기술과 성분을 바탕으로 제로이드는 피부 종류별 고민에 따른 제품군을 확장했다. 극민감성 피부용 ‘수딩’, 계절성 건조함과 극건성 피부에 적합한 ‘인텐티브’, 전문적인 피부과 관리 후 후속 관리를 돕는 ‘더마뉴얼’, 지성 및 트러블 피부에서 피지를 조절하고 유수분 균형을 찾아주는 ‘뽀프로브’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였다.

현재 제로이드는 총 7가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인텐티브 MD’ 제품군은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제로이드는 병·의원 전용 제품군을 보다 고도화해 브랜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제품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인텐티브 MD 크림과 인텐티브 MD 로션은 국내 보습제로는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았고,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제로 쓰인다.

해당 두 제품 모두 의료보험 인정 비급여 품목에 해당하며 의사 처방이나 추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후 바로 2017년에 전년 대비 388%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출시된 인텐티브 MD 리치 크림도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기존 인텐티브 MD 제품들의 보습력과 보습 지속력을 재단장한 것으로, ‘피부 보호제’ 인증까지 확보했다. 건조한 피부는 물론, 화상 등으로 손상된 부위에 이 제품을 도포하면 물리적인 막을 형성해 피부 수분을 유지하고,



CJ올리브영에 입점한 제로이드 제품들.

지난해 ‘올리브영’ 입점...유통망 넓혀
독자 성분 함유한 선크림 제품 ‘인기’
면세점 입점, 9개국 수출 등 해외 성과

손상된 부위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이처럼 ‘피부 장벽 강화’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꾸준히 이어오는 데 주력하고 있는 제로이드는 지난해 8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병원에서 쓰는 ‘화장품’이라는 입소문만으로도 탄탄한 팬층을 쌓았던 제로이드는 전국 병·의원에서 국내 대표 뷰티 유통업체 CJ올리브영으로 유통망을 넓히며 일반 소비자 걸로 한 발 더 다가갔다.

CJ올리브영 입점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로이드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8~12월 매출과 2025년 1월~5월 매출을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에 전년 하반기 대비 무려 153%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입점 당시에도 입점 하루 만에 온라인 초도 물량이 완판됐고, 올리브영 쇼케이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는 목표 매출의 300%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제로이드 시그니처 제품인 ‘인텐티브 크

림’의 경우, CJ올리브영 입점 하루 만에 올리브영 온라인몰 전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에 이름을 올렸다. 또 ‘데일리 선크림’과 ‘이지워시 마일드 선크림’은 처음 올리브영 온라인몰 입점 후 3개월 만에 올리브영 오프라인 판매처를 점차 늘리고 있다. 두 제품 모두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독자 개발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9S’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로이드는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글로벌 소비자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지난 2월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에 입점한 데 이어, 6월에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신세계 면세점 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하는 등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다. 해외 소비자와의 접점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로이드는 일찍이 2010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을 시작했고 2020년 미국으로 진출했다. 이밖에, 중국, 러시아, 호주 영국 등 총 9개 국에서도 판매한다.

네오팜 관계자는 “제로이드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피부 전문 더마 코스메틱 No.1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며 전문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K뷰티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제로이드 ‘선크림’ 2종.

/네오팜



▲한국 역도, 아시아주니어유소년선수권 출격... 카자흐스탄 출국
▲조코비치, 윔블던 1회전 통과...여자 2위 고프는 탈락
/사진 뉴시스

▲LPGA, 아시아·태평양 지사장에 크리스 매디슨 선임
▲이우진, 홍콩필 하프 수석으로 임용...1년 후 종신 여부 결정

▲영 밴드 뮤즈, 10년 만에 내한공연...9월 인천문학주경기장
▲헝가리에서 ‘사찰음식 대가’ 정관스님 ‘장 담그기’ 시연

SAMSUNG

진정한 AI 폰
Galaxy S25 Ultra
Galaxy AI ✨



빛 번짐 걱정 없이 더욱 선명하게 나이트그래피

최신 폰 사는. 최선의 방법.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월 5,900원으로 Galaxy S25 Series를 반값에, 파손 보장까지!

1년 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가 보장되는 조건이며, 2년 후 반납 시 최대 40%까지 보장됩니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가입 기간에 삼성닷컴을 통해 자급제 갤럭시 S25 시리즈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삼성 개인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가입신청서 작성 후 차월부터 자동 결제됩니다. 외관 파손, 전원 작동 불가, 계정 미삭제 제품 제외 모두 반납 대상입니다.

samsung.com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조명 조건, 촬영 조건(여러 피사체, 초점이 맞지 않음 또는 움직이는 피사체 등)에 따라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UI/UX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